

안철수, 오세훈 직격 "내곡동 문제 확산..사퇴할 수도"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살'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고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내곡동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스스로 '무결점 후보'라며 "여러가지 일로 말뚝 잡히지 않을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만 후보사퇴의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막판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후보는 시장 재직 시절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

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기호) 2번이든, (국민의당) 4번이든 모두 더 큰 2번일 뿐"이라며 "선거 후 더 큰 2번을 만들어야 정권교체의 길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배를 탄 식구이고, 내년 대선 대장정에 나서야 할 동지"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우리는 황영조 선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나 이봉주 선수가 평생 18만km를 뛰며 공식경기에서 41번 완주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다"며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역사상 최초의 중도·보수 단일화를 이뤄낸 두 주인공을 똑같이 기억하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23일 전면 개통... '25년 성능개선공사 마무리'

성산대교 임시가교 설치, 본교 880m 구조물 보수보강, 교량 상부 슬래브 교체

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해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지난해 11월에 완료한 데 이어 남단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23일 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성산대교 남단의 접속교와 램프 4개소, 접속육교 등이 보수·보강됐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한강에서 통행량이 일일교통량 16만대 이상으로 20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일일교통량이 많은 한강의 주요 교량이다.

'17.3월에 착수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성산대교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단→남단→본교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20.11월 완료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는 접속교와 램프 2개소를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가 전면 교체 완료됐다.

마지막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는 오는 '21.4월부터 시작되며 임시가교를 설치하고 차량을 우회하고 성산대교 본교 880m의 구조물 보수·보강은 물론 교량 상부 슬래브를 오는 '25.12월까지 교체한다.

성산대교는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급에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급으로 성능이 개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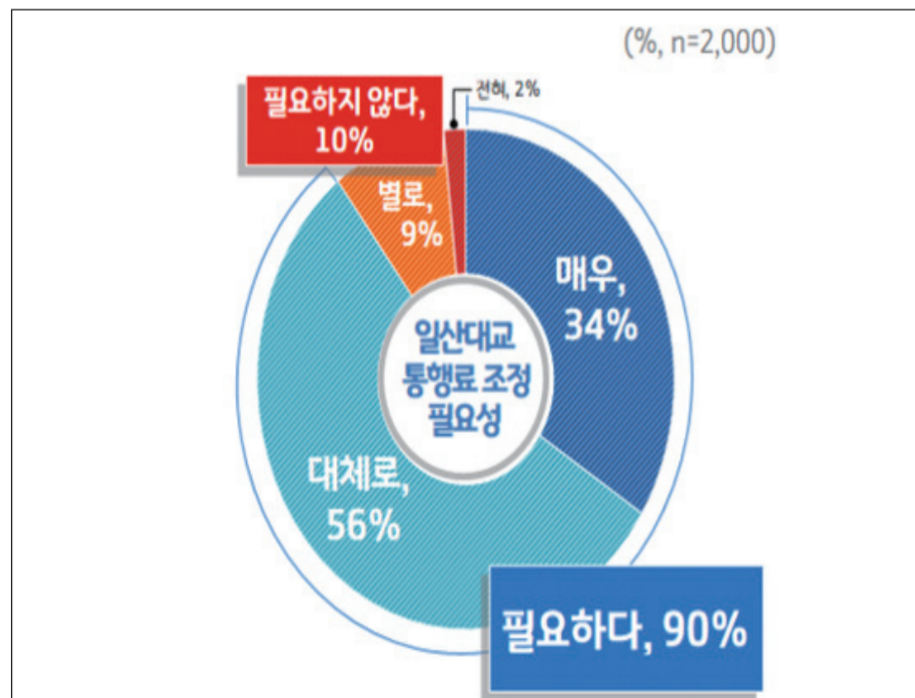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기간 중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임시가교를 설치해 기존 차로수인 왕복 6차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임시가교 등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시속 5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 운전하거나 가양대교, 양화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민 90%,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투자사업 필요성 공감하나 일부 국민에 부담되는 것은 부적절



나타났다.

이는 도민 전체 기준 35%에 해당되며 18세 이상 도민 기준 일산대교 이용자 수는 약 399만명 정도로 추계된다.

일산대교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34%, '보통이다' 43%, '불만족한다' 23%로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자의 대부분은 그 이유로 비싼 통행료를 들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다리로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유료도로다.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은 현재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에 대해 도민 대다수는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km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편이다.

도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의 내실화·건전화 유지해야한다'는 데 동의하면

서도,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한편 일산대교 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율 8%에 대해 도민들은 '타 민자사업이나 현 시장금리보다 과도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 무게를 실었다.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현재의 8%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14%에 그쳤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통행료가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 측에 자금제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으며 지난 5일 회계·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오는 24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정한 민자대로 운영 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쉐케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8~23일 18세 이상 도민 2,000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

최광수기자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천년계곡이 흐르는 영양천의 맑은 물이... 영양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천을 따라 걸으세요.

물

영양천의 맑은 물이... 영양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천을 따라 걸으세요.

얼

영양천의 얼... 영양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천을 따라 걸으세요.

맛

영양천의 맛... 영양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천을 따라 걸으세요.

영양

영양을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ASSOCIATION cituslove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원,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루, 주실마루,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양풍력발전단지, 흥원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을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ASSOCIATION cituslove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원,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루, 주실마루,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양풍력발전단지, 흥원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이철우도지사, 국토부장관 면담. 대구경북선 등 SOC 현안사업 강력 건의

대구경북선 국가계획 최우선 반영. 정부의 결단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경상북도의 철도·도로분야 현안사업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지사가 국토부장관과 별도 면담을 가진 것은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여부와 무관하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경북도의 최우선 도로·철도 현안사업에 정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해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 미래청사진에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선의 국가계획 최우선 반영과 문경~김천 내륙철도,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및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선은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함으로써 경부선 교통분산과 경북도의 철도이용 확장에 큰 축

을 담당하게 될 노선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공적 연착륙을 이끌어낼 철도망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공항건설에 안보철도 역할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반철도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예타중인 문경~김천 내륙철도에 대해 작년 7월 김천, 상주, 문경시 24만 시민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점 등 사업추진에 대한 간절한 도민여론을 언급하며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사이의 끊어진 철도망을 조속히 연결해 수도권과 중·남부권을 연결하는 산업·관광벨트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울러 중앙선 전제구간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동

~영천 71.3km구간 복선화를 재차 요청했다.

사업착수 이후 대구통합신공항 확정, 영천경마공원 실시기획 고시 등 지역내 수요여건 변동과 수서~광주 복선전철, 여주~원주 복선화 추진 확정에 따른 외부요인을 적극 반영해, 2022년말 개통시점에 맞춰 안동~영천구간을 포함한 전구간 복선화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지의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 등 도내 9개 노선 684.2km에 대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도로확포장, 위험구간 개선 등을 위해 일괄 예타 17지구와 500억원 미만 지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이용활성화의 최대관건은 대구경

북선 신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이라고 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지역정치권과 함께 최대한의 역할을 발휘해 통합신공항의 성공과 연계 철도·도로교통망 구축에 흔들림없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전춘성 군수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량 확대 강력 건의

19일 한국 환경공단 방문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가 19일 한국 환경공단을 방문해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확대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와 관계공무원은 이날 한국 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을 만나 진안군민들이 용담댐 건설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도 100%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수도 공급량 확대를 건의했다.

용담댐은 전북도와 충남도 등 7개 시·군 150만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은 1읍 5면의 68개마을 36.24㎢ 면적이 수몰되고 2,864세대 12,616명의 실랑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 진안군민의 49%만 용담호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받고 있다.

월원정수장 급수지역이 광역상수도 공급에서 제외되는 등 상수도

공급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이날 전 군수는 댐 건설과정에서 많은 희생은 치른 진안군민들이 소외받는 일은 불합리하다며 2035 국가수정비기본계획 급수체계 변경에 4,000㎢/일 추가 반영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프로그램 지원, 2022년 신규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등이 국비사업으로 최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편성에 최우선 반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춘성 군수는 "전북·충청권 150만명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비롯한 섬진강 등의 상수원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면서 진안군민의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철기자

문정우 금산군수, 새벽 영농현장 방문 소통행정

농가 애로사항 청취, 금산농업 발전 방향 논의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18일 아침 7시 부리면 평촌리 일원 딸기·갯잎 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지역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물 피해를 입은 곳으로 문 군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했다.

또한 영농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향후 농업정책에 필요한 사업구상 및 금산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삼을 비롯한 각종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일손 부족 해결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군의 선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외 원예용 상토 및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외국인 일손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농어민수당 세대 간 연간 80만원 지급, 농업발전기금 58억원 조성과 더불어 농가 기본소득 증가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농업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IT기업 아마존과 협업을 추진 중"이라며 "IT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 찾은 법무부장관에 지역 현안사업 적극 건의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를 40여 일 동안 수용·치료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청송군수를 비롯한 지역자생단체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윤경희 청송군수는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 등의 법무부 추진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전국 최대 교정시설이 위치한 청송에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를 건립한다면 능동적인 법무공무원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보면 소재지 내 비상대기숙소 추가 건립과 경제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는 여성교도소 유치를 건의했다.

교정가족들의 주거 난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지역물품 구매 등으로 집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반목과 갈등을 빚었지만

청송은 두 차례의 통 큰 수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확진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청송군과 군민, 경북북부교도소 직원 등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관님께서 직접 청송을 방문해 진보청년연합회를 비롯한 자생단체대표들의 노고에 재차 감사를 전함은 우리 청송의 공동체 의식이 빛난 결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청송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고 행정은 늘 함께 고민 하고 동행 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정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페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김상호 하남시장, 관광활성화 유공 문화관광해설사에 표창 전수

역사와 문화 알리는 데 기여한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3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 전수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집무실에서 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표창을 전수했다.

김 시장은 이날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 온 김희근, 김선영, 박세옥 3명에게 '경기도 관광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들은 2004년 박물관 문화해설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며 광주향교 등 하남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알리는 데 힘써 왔다.

김상호 시장은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전하며 "하남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성산성, 광주향교, 미사리 선사유적지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거점 마련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2004년 역사박물관 개관 시 문화해설사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명의 신규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김단산, 이성산성, 광주향교 3곳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역사문화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역사투어 시내버스 운영, 이성산성 실감 콘텐츠 제작, 문화의 거리 조성, 하남시 통합안내지도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수/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참여

민주화의 성지 광주 찾아, 행복정책 추진방향 제시

안승남 구리시장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들 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초의 행복 축제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 광산구·동구·서구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한겨레신문이 후원한다.

19일 오후 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이크 비킹 덴마크 행복연구소장, 온라인 라이브 강연 국내 8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복정책 콘서트' '행복정책 시민아이디어'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날인 20일에는 도올 김용옥과 소빈 박진도의 '행복 대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하수정 북유럽연구소장을 비롯한 4인의 명사들이

펼치는 '행복 릴레이 강연'이 이어지며 강연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인 '행복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은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앞서 진행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으며 행사 전 일정에 참여해 구리시 행복시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하고 행복정책 시민아이디어 본선 심사위원을 맡아 시민의 제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국내 최초의 행복 축제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개최되어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다"며 "다채로운 행사와 강연이 준비된 만큼,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정책에 반영해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포괄적인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 위해 본격 행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국회 통과 건의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이양사무를 대폭 포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4개 특례시가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해 상반기 내 대도시 특례사무를 우선적으로 집중 심사, 반영 해줄 것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현재 道 중심의 획일적 국가 자원 배분 및 지방자치체도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어,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박탈받은 물론 道의 지위에 예측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공동 건의문에 담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 사무가 처리 가능

하도록 단순 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한다"며 "법정무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가 없어,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 및 道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허 시장은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창원에는 특례시를 선택했고 모든 권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 특례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길인만큼 특례시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오후 일정으로 허 시장은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특례사무가 포함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500만 특례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의 금년 내 통과와 행안위 위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영경/기자

신동헌 광주시장, 건강한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 대폭 확대 시행

광주시보건소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올해 확대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적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까지 확대했다.

단,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술비지원은 총 17회, 최대 110만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20% 초과가정에 대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산순위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정기 지원사업은 1개의 보정기 지원에서 양측 보정기지원

으로 확대했으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도 기존 출생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입원치료비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해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서군의 광주시보건소장은 "임신에서 육아까지 시민들의 건강관리 요구도가 높아지는 만큼 임신·출산 지원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수/기자



이창재 김천시 부시장, 일일 민원안내 및 민원업무 직원 격려

민원인 눈높이를 맞춘 봉사행정 구현 당부

김천시는 지난 3월 18일 이창재 부시장이 민원실을 방문해 일일 민원안내 체험 및 민원업무 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일일 민원실 안내 근무를 자처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김천시에서 처리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상담·안내했다.

또한 김천시청을 찾는 하루 방문자는 700여명으로 이중 절반인 350여명 이상이 민원실 방문자로

민원업무 직원들의 업무 태도에 김천시의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먼저 미소로 인사하며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봉사행정 실천을 당부했다.

이창재 부시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가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세기/기자



한대희 군포시장, 대야미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한대희 시장 "공직자 투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 안돼"

한대희 군포시장은 3월 19일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서의 전·현직 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수 조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군포시의 관련 공직자와 군포도시공사 등 관련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시는 2011년 이후 시행된 관내 모든 개발사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매수 시기와 거액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투기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또한 "관련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10곳 중 한 곳으로 지난 2018년 7월 지정돼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23년 12월까지 5,11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원종균/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최선 다하겠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 시장은 위례동 주민들과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위례동 주민들은 김 시장에 지역 현안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열병합발전소 문제, 성남골프장 개발 등 질문을 이어갔다.

지역 주요현안인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에 대해 김 시장은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주민 기본권의 문제"라며 "지역 형평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상위계획상 공청회가 있기 전 주민대표단·지역 정치인과 충분히 협의해 가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암천 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오는 6월까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수립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것"이라며 "내년 공사를 착공해 23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열병합발전소 소음, 백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한 주민의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김 시장은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열

병합발전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활동 제한은 있지만, 작년 5월 구성된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주민들이 우려하셨던 교통문제는 조계중로의 상월선원 규모 축소 결정으로 해결됐다"며 "법시민 민관협력위 종교분과 등에서 모든 종교가 시민화합에 힘쓰고 있으니, 상월선원이 문화·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남골프장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했다.

김 시장은 "현재와 같이 골프장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토양오염 등에 대한 조치도 병행해 가며 주민들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통·환경·교육·문화 등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위례동의 하남다움을 잘 찾아서 '위례 하남에 살길 잘했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서울시, 세운일대 도심 제조·인쇄산업 x 예술 협업작품 전시

서울시, 세운일대 도시재생사업 일환, 주민공모사업 통해 작품제작 지원

서울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서울 중구 산림동에 위치한 을지예술센터에서 '을 - 이야기, 재료, 실험'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시회 제목에 사용된 '을'은 '을지로' 지역명의 머릿글자이며 문장에서 관계를 잇는 목적격 조사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작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 산업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3명의 작가들이 이 일대 도심 제조·인쇄 산업을 예술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을'을 추진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3개 팀의 책임 작가로는 산업 재료나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을 전개한 소동호 작가와 서울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기록해온 유혜인·조예진 작가 그

리고 도심 속 다양한 매체를 결합해 새로운 매체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여인혁 작가가 있다.

총 3개팀 13명의 창작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제조 산업에 대해 듣고 경험하면서 세운상가 일대에서 쓰이는 재료와 기술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다.

총 12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가구 조형과 제작 기술을 활용한 작품 5점 그래픽 디자인과 인쇄 기술을 활용한 작품 4점 전자기술을 접목해 뉴미디어 실험을 한 작품 3점이다.

'을 - 이야기, 재료, 실험' 전시 작품은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예술센터에서 관람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을지예술센터' 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접수하며 희망하는 관람일자와 회차를 선택할 수 있다.

전시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희망 관람인원은 40인으로 제한된다.

전시가 열리는 을지예술센터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시 기간 동안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두는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입장 관람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별도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할 경우 전시 작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석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산업이 예술로 재해석된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구로구,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 금액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부동산 앱 홍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분위기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부동산 앱'을 통한 상가 홍보,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

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로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12월까지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31일까지 구로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점포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재능 기부로 희망 전한다... '청소년 재능나눔 봉사단' 모집

영상 제작 및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 대상...11월까지 상시 모집

광진구가 영상 제작 및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재능나눔 봉사단'을 모집한다.

이번 봉사단은 청소년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는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광진구 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모집분야는 영상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한 '프로듀서 광' 음악, 댄스 등 예체능 활동이 가능한 '아티스트 진' 2개 분야이다.

봉사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먼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음

악, 댄스 등 공연을 준비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상시 가능하며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재능나눔 봉사단은 청소년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제한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동작구, 자치회관 온라인 강좌 운영으로 소통의 기지개 켜다

코로나 19를 문화강좌로 극복하는 슬기로운 동작



동작구가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2021년 2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온라인 강좌로 꾸며졌다.

구는 지난 9일 각 동별로 희망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42개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스포츠 문화 여학 취미 4가지 분야로 생활요가, 라인댄스, 요리교실, 영어회화, 부동산 경제교실,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강좌별 특성에 따라 줌 네이비 밴드를 활용한 강사와 수강생 간 실시간 질의응답 등 양

방향 소통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구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강 지원창구를 운영해 온라인 플랫폼 가입 및 설치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등을 안내한다.

관내 주민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로 심신이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강좌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문화생활 배움터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대신할 이번 프로그램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동구, 2021년 온라인 치매특강 개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특강 개최

강동구가 3월부터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온라인 치매특강을 개최한다.

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육대상을 일반 주민까지 확대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교육을 확대해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예방을 위한 특강을 월별로 실시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특강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단, 3월에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줌 설치 안내문 및 교육자료는 교육 참여자 가정으로 사전에 배포되며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월별 선착순으로 90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교육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은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치매안심센터로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치매 요양 시설 종사자와 치매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치매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2021년 온라인 치매특강

매월 3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전문가 일러두는 치매특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치매강좌> 일일 마라톤.....

3/31(수)	4/21(수)	5/26(수)	6/23(수)	7/21(수)
치매예방	치매는	치매인지	치매가족	치매안심
강기문동	성석무자	이혜자	공경혜	계선리

.....<치매강좌> 일일 마라톤.....

8/18(수)	9/15(수)	10/20(수)	11/17(수)
알기쉬운	치매친화	치매	치매
노인복지	심포지엄	발표	건강강좌

교육은 줌 프로그램 (Zoom cloud meetings)으로 진행됩니다.
1회차 1시간을 할애하며, 1회차만 참석 가능하며, 1회차만 참석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강동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gangdong.seouldementia.or.kr
2. 강동구치매안심센터 전화신청 02-489-1130
3. 강동구치매안심센터 QR코드

강동구치매안심센터

문석진서대문구청장 "사회적경제 발전 위해 코스타리카와 협력"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 열고 양국 간 사회적경제 협력 논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이달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사회적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두 나라의 사회적경제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초청으로 방한한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 외교

부 장관과 아드리아나 솔라노 라플레 외교부 대외정책국장 등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4인과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및 자원위원 등이 참석했다.

문석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코스타리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돌포 솔라노 장관은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두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이뤄 가자"고 말했다.

코스타리카는 농업, 에너지,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요 발전 전략으로 추진해 총생산의 1/4 정도를 사회적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7년 6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약' 체결 이후, 정책 벤치마킹과 사회적기업 정보 교류, 국제회의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협의회는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경제로 사람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2013년 3월 창립했으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올해 2월 제5기 회장에 취임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양국 간 사회적경제 협력 사업에 관한 후속 논의를 위해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와 공사 등에게 우리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함께 꾸려요...우리 마을, 우리 교육

강서구, '강서혁신교육지구 공모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서혁신교육지구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꿈을 펼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 실습, 탐방 등을 통해 생생한 교육을 제공할 주민단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병행 가능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창의체험학교 강서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 도전 진로탐험대 등 총 4개다.

'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부모 재능기부 동아리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구성 동아리를 모집한다.

진로 인권, 독서 과학, 친환경, 소외계층지원 등 여러 분야의 동아리가 지원 가능하다.

강서구 초·중·고 학부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면 신청 가능하며 30개 동아리에 각 1백만원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창의체험학교'는 마을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주민단체가 대상이다.

단, 신청 사업에 대해 사전에 관내 학교 수업과 연계된 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아동·청소년 대상 마을교육 관련 주민단체이며 20개 사업에 각 2백만원이 지원된다.

'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하는 문화, 체육, 놀이, 인성 등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마을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수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 마을학교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마을교육 관련 주민단체, 기관, 학교 등 3개 이상

이 연합한 공동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개 사업에 각 3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도전 진로탐험대'는 진로 직업 탐색의 중요한 시기를 맞은 중학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진로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획일적인 진로체험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아동·청소년 대상 진로사업 관련 주민단체, 기관, 학교 등이 연합한 공동체이며 1개 사업에 2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꿈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꾸려나가고자 한다"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풍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2021년 강서혁신교육지구 사업 공모
2021.3.22(월) ~ 3.26(금)

강서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단위 교육사업으로, 교육공동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의 특성과 교육공동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1.3.22(월) ~ 3.26(금)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문의처: 강서구 교육정책과 02000-6973, 6984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
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	학부모 동아리, 동아리 지원금 지원, 동아리 운영비 지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강서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사업당 1,000,000원 내
찾아가는 창의체험학교	관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서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사업당 2,000,000원 내
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하는 문화, 체육, 놀이, 인성 등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지원	강서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사업당 2,000,000원 내
도전! 진로탐험대	중·고등학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진로 프로그램 운영	강서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사업당 2,000,000원 내

용산구, '한눈에 알아보는' 가족관계등록서비스

한글 전용 세대 위한 가족관계등록 동영상서비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문서 작성은 한글로 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 작성이 허용된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 용산구가 한글 전용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비스를 선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창구에 동영상 매뉴얼 전용 PC를 설치, 민원인 누구나 매뉴얼을 보면서 신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매뉴얼은 혼인, 출생, 이혼, 사망 4종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한자 사용이 어려운 한글 전용 세대를 위해 본관 한자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아 민원인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 신고서 작성법을 알리고 오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매뉴얼은 2018년 부산연계구가 개발, 전국 지자체에 무상으로 보급한 프로그램이다.

구는 가족관계등록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청 종합민원실에 음성 송출 전용 노트북, 오디오 믹서 앱, 스피커를 설치, 클래식·재즈 등 다양한 음원을 송출하고 있다.

민원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는 평이다.



동영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 동영상 매뉴얼

혼인, 출생, 이혼, 사망, 정지, 재생

'본'의 한자를 모르시나요?
본인의 성씨 초성에 해당하는 아래의 버튼을 선택하시면 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나 다 리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ㅇ

등록기준지?

또 지난 1월부터 '오후 4시 부서민원 비우기' 사업을 시행, 매일 오후 4시 부서별 전자민원함을 비우고 법정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연된 민원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성정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

종합민원실은 2013년, 2015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된 바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내 아이디어가 우리 지역 예산에 반영된다

강동구, 오는 4월 23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강동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4월 23일까지 집중 공모한다.

강동구민이나 관내 사업체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동구는 지난해 총 269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이 중 최종 48개 사업, 29억 9천만원이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됐다.

공모 대상사업은 쾌적한 지역환경 개선 사업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마을 만들기 사업 도로 보도, 공원 등 공공시설물 보강사업 주민 안전 관련사업, 소규모 동 편의사업 등 주민생활 관련 사업이며 편성규모는 총 32억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게시글을 등록하거나 이메일 팩스, 강동구청 예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2021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신청기간: 2021. 2. 24. ~ 4. 23. (금)

신청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무실

문의처: 강동구청 예산과 02-2600-1111

서구, I-FOOD PARK 식품산업 단지 조성 마무리 박차

인천 서구가 수도권 최대 규모 식품산업 단지인 'I-FOOD PARK' 조성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는 'I-FOOD PARK' 준공에 앞서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달 초 TF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와 해당 부서 간 협업 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적극 추진에 나섰다.

TF는 지난 17일 주관부서인 위생과를 포함해 5개 관련 부서와 시행사 간 1차 회의를 열고 도로 개설 공사 공원, 녹지 하천 CCTV 설치 등 시설물 관리 이관 등 현안에 대한 대응사항 청취 및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서구는 이번에 꾸리진 TF를 중심으로 회의 개최, 현장 방문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사업 마무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업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I-FOOD PARK 식품산업 단지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단지로서 인천 서구 금곡동 457일대 약 28만㎡ 면적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됐으며 토지 85필지는 모두 분

양 완료됐고 100여 개의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착공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I-FOOD PARK 식품산업 단지는 16,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단지로서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식품전시관, 체험장, 판매시설 등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의 공간을 마련해 차별화된 명품 식품산업 단지로 만들어질 것이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조성 마무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FAIR TRADE 공정무역 광명시 공식 인증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시민토론회를 거쳐 지금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모든 광명시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명시

오산시 2020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장려기관 선정

오산시는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도 실적인 도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건, 26백만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

하는 등 도정시책을 추진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보이는 ARS'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한편 부당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원 누락을 최소화했다.

또한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과세 방법 개선으로 세입증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8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이천시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에게 장애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주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작용을 도모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학년은 8절지, 고학년은 4절지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출품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적합성·순수성·독창성 등을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수상자 시상은 학교 측과 협의 후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작품은 이천시청,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수상작 학교 등을 순회하며 전시할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제8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공모대상 이천시 거주 초등학생

공모주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내용
▶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

※ 모든 작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입상자에 대한 권한은 이천시장애인복지관에 귀속됨.
※ 타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이나 수상 시상이 발생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시상사내에 접수함.

제출사항	작품 크기	공용 제출 서류
· 저학년(1~3학년) - 8절지(272mm x 394mm)		참가신청서 1부
· 고학년(4~6학년) - 4절지(394mm x 545mm)		

시상내역	구분	상격	저학년	고학년
최우수상	이천시청장	1	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1	
최우수상	시정한국어문학회 이천시부회장	1	1	
	이천시장애인복지관장	1	1	

접수 2021년 4월 05일(월) ~ 4월 20일(화)
발표 / 우편 : 2021년 4월 20일(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공모전 당일의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출 및 문의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역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3 포스터 공모전 담당자 및)
(TEL:031-634-1153 / http://ich.sgwon.or.kr)

주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이천시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협조 시정한국어문학회,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용인시 유림동, 어린이 안심 등·하교 서비스 시작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은 19일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어린이 안심 등·하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서 혼자 등·하교가 어려운 초등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리소는 앞선 2월 3일부터 6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초등학생 17명 모집했다.

대상 아동들에겐 마을 지킴이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동행해준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첫 도입 후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는 "올해도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신동현 광주시장, 승격 제20주년 맞이해 기념식수 행사 개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주목가 등)로 낮추고, 교외부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큼니다.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42분, 4.6%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24%

광주시는 19일 시청 광장에서 "광주시 승격 제20주년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현 시장, 임일혁 광주시의회장이 함께 했으며 시 승격 제20년을 맞이해 자체 기념행사를 코로나19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하고 새로운 광주 20년을 위해 기념식수 행사를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내빈을 최소화 했으며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시 승격 당시 15만의 인구가 현재 40만에 육박하며 2천 9백 여원의 재정이 1조1천3백여 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세계로 향하는 너른고을 광주를 바라보면서 천년 광주, 스무살 광주, 너른고을 광주가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선7기 청사진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은 기념식수는 감나무로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 겨울을 이겨내는 식물로 "변함없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광주시의 비전을 담고 있다.

최근수기자

남양주시, '쌤과 함께 정약용 읽기' 열린시민반 개강

정약용 선생님께 공부만 했다? 여행가 정약용을 만나다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정약용 인문학교 - 쌤과 함께 정약용 읽기 열린시민반 강좌를 시작했다.

'쌤과 함께, 정약용 읽기'는 열린시민반, 청소년반, 공무원반 각 50명씩 모집해 워드 코로나 방식에 맞춰 비대면 강좌 5회와 유적지 현장 견학 1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열린시민반 강좌는 조선 후기 한문학의 감성과 사유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희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는 다산과 국도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정약용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쓴 글을 읽으며 선생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첫 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1회 강의는 정약용 선생이 고향 남양주와 인형 일대에서 여행한 기록들을 읽으며 민생을 걱정하는 선생의 모습 외에 인간정약용의 색다른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오는 4월 14일 개강하는 청소년반은 아직 수강생을 모집 중이며 다섯가지 얼굴로 보는 다산정약용 선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쌤과 함께, 정약용 읽기 청소년반은 다산서당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40주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검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하남시, '스마트시티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금상에 'VR 기술을 활용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선정

하남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한 '하남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6건의 참신하고 다양한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중 실무부서 1차 심사를 거쳐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지난 18일 김남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온라인 줌으로 열고 각 팀이 발표한 아이디어를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금상은 헬푸유 팀의 'VR 기술을 활용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차지했다.

VR 콘텐츠를 활용한 영양교육으로 하남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한다는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은 아호화팀의 'CCTV와

AI 기술을 이용한 통합서비스'와 MATO팀의 '스마트 호수 관리 시스템'이, 동상은 Bro팀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시스템을 활용한 화웨이 양봉스마트팜'과 아맛쿠팀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스마트시티'가 선정됐다.

금상 1팀은 100만원, 은상 2팀과 동상 2팀은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하남시장 상장도 함께 수여된다.

시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민이 문제 발굴부터 실증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사업에 녹여내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같이하는 스마트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노무사 상담 진행

평택시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무사 자문 상담으로 노동 기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에게 근로권의 침해 예방과 노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청소년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단형 교육방식으로 무료 진행되며 노무사 자문 상담은 1:1 개인상담 및 온라인상담으로 진행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지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이번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에 따른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1-646-5480~4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김남주기자



평택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

평택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1년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및 단체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모집기간 : 03월 ~ 11월 (상시모집)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신청서 작성, 일정조율 후 교육 및 상담 진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노무사상담
1. 모집대상 - 평택시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 평택시 청소년 단체 및 기관시설 소속 청소년	1. 모집대상 : 평택시 관내 청소년 9세~24세이면 누구나 상담 가능 2. 상담내용 -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등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부당처우 관련 노무상담 - 평택시 소재 사업장 및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누구나 노무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2. 교육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 이해 - 일장에서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 찾기 - 써를 형태의 수평적인 소통형 집단교육	

문의 상시 가능 / 031-646-5483 / 평택시 평남로 616, 청소년문화센터 2층

경기도 평택시 (재)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명시, 시민운동장 지하 '대규모 공영주차장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철산역, 상업지역과 가까워 지하철 환승 편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명시는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복합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사업은 기존 공공청사 부지인 시민운동장 지하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건축 연면적 15,173㎡규모로 주차장 367면을 조성한다.

공사는 오는 4월 시작해 2022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효율적 토지활용으로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용지보상비 650억원을 절감했으며 주차장과 함께 복합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생활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공영주차장 상부는 축구장으로 재조성하고 주변 공간은 시민의 건강한 삶이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한다.

철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그간 주차장이 없어 차량 이용 손님과 예약손님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며 "인근에 큰 주차장이 생긴다면 가게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가워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생각하는 광명시의 가장 큰 생활 불편은 주차문제이다."

이번 사업으로 구 도심권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주차장이 조성되면 철산구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이 철산역, 상업지역과 가까워 원거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상업지역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순희.원종균기자



수원만민광장에서 활동하고 커피 상품권 받으세요

수원시가 시민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인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를 더 쉽게 개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018년 12월 개설한 수원만민광장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수립·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온라인 참여플랫폼이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 10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를 개편했다.새로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만민광장 알아보기' 배너가 추가됐다.또 토론광장 정책 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메뉴를 클릭하면 각 게시판에 대한 설명과 처리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상단에 추가했다.22일부터는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만민광장'에 접속해 토론광장·정책 제안·주민참여예산 게시판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이 등록한 의견에 댓글을 등록한 뒤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모·접수'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4월 20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최정근기자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생태관광,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이 맡는다

안산시는 19일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과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경기도 유일 생태관광지역인 대부도·대송습지를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은 이달부터 2023년까지 생태관광 핵심 콘텐츠 개발 주민소득 창출모델 발굴 및 운영 대부도 환경정화 사업 및 캠페인 등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섬 대부도를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부도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오산 AI 교육도시

경북도, 고부가 전략품종 전복. 자원화에 총력

전 국민 대표 보양식, 어촌마을 고소득원 각광, 어린전복 50만 마리 방류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고부가가치 전략 품종인 어린 전복 50만 마리를 3월 18일 ~ 24일까지 도내 연안 5개 시·군 마을어장에 자원조성을 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전복은 지난해 4월 체란 후 약 11개월 동안 사육·관리해 4cm까지 성장시킨 것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높은 고부가 품종이며 연안 정착성 품종으로 방류지점 주변에서 성장해 어촌계 소득증강에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대표 품종이다.

또한 각종 무기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예부터 기력보충에 필수 음식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면역력 증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이목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인정하는 품종이다.

수산자원연구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0만 마리 이상의 어린 전복을 생산해 자원회복사업을 하고 있으며 1년 만에 방류까지 가능한 크기로 생산해 중간육성 과정 없이 바로 마을어장에 방류할 수 있는 맞춤형 생산기술개발 확립으로 어촌계 고소득 창출 품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영석 활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전복을 비롯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품종개발과 자원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해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고 품종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어업인의 소득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소통·공감·배려 따뜻한 경북 중등교육 실현

2021 학년도 중등교육 주요업무 전달 연수

경북교육청은 19일 경북교육청연수원 소강당에서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 학년초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2021 중등교육 주요 업무 전달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수업 및 평가, 학적·출결 및 학교 생활기록부 등 학년초 학교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학사일정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021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수업전문가, 스스로 학업 성취인증제 전입학 등 학적업무 처리 지침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및 주요 민원 대응 능력 신장 등이다.

해당 내용별로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Q&A 중심으로 전달한 중학교 교육과정 및 경북형 자유학기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수업 조정 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경력 교육전문직이 많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맞춤형 장학 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교육전문직인들의 협업하는 교육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 개발로 학교 현장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장학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청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2021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

청년단체 및 주요활동계획 소개, 사업 안내 및 예산교육 등으로 진행

청년공동체의 울 한해 성공적 활동을 다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이 3월 19일 오후 2시 청년공동체 10팀 대상으로 청년공간 다운나그래에서 진행됐다.

대구가시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월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63팀이 신청했고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10팀이 선정됐다.

이번 출범식은 청년공동체의 울 한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적 활동의 지지를 다지고 활동 격려를 위한 행사로 축하공연 및 청년단체와 단체별 주요활동 계획 소개, 활동비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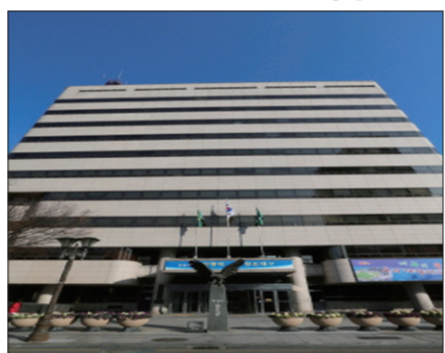
청년공동체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역 청년 소셜벤처 활성화, 청년독서문화증진, 청년창업자 활동기반 마련, 건강장애 환자를 위한 멘토링 등 지역민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청년공동체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와 멘토 및 전문가 매칭 연결, 청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 주요활동과 성과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홍익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

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청년들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의성군, 조문국 미션투어 관광상품 운영

조문국 역사기반 현장형 모바일 게임

의성군은 의성 대표 관광지인 조문국박물관과 금성면고분군 일원에서 수행하는 모바일 미션체험형 관광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광상품은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인 '경북 문화기행 HISTORY 경북'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인한 비대면·언택트 방식의 관광트렌드에 맞춰 마련됐다.

조문국 미션투어는 조문국 역사를 기반으로 한 2가지 스토리인 '도굴꾼, 괴도의 예고장' '경덕왕릉을 찾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소마다의 고유한 스토리를 활용한 미션으로 높은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시 문화관광해설사대기소 또는 안내소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



다. 설문조사 이벤트는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언택트 관광상품인 조문국 미션투어는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조문국박물관 휴관으로 금성면고분군 일대의 게임만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사전 방역을 시행하는 등 방역

지침 준수에도 철저히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미션투어는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상품”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힐링여행 의성의 매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영천시보건소, 2년 연속 국가암관리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여성암 내비게이터 활동 및 여성암 검진 이벤트가 돋보여

영천시는 지난 18일 대구·경북지역 암센터에서 개최된 제1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년 연속 국가 암 관리사업 '도지사 표창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2020년 국가 암 관리사업 평가를 통한 유공기관에게 포상을 통한 노고를 치하하고 암 관리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2021년 사업설명회 및 서포터즈 발대식을 통해 암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영천시보건소는 여성암 검진 수검률이 매년 저조했지만, “여성암 내비게이터 활동 및 여성암 검진 캠페인 이벤트”를 통해 여성암 수검률이 작년보다 올랐다.

또한 검진율이 낮은 신념면을 암

예방 실천마을로 지정해 주민들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캠페인이나 행사 등 암 검진 대면 홍보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1:1 독려전화, 우편발송, 헬스트릭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검진사업을 추진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국가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성암 검진, 길안내를 시작한다'라는 주제로 전국 2위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쾌거까지 이뤘다.

최수영 영천시보건소장은 “해마다 암 검진을 받고 암 예방 활동을 실천하며 건강한 영천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울진군,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태교 In the box' 신청 접수

4주간 8회 진행, 비대면 화상 교육 제공



울진군에서는 4월 5일부터 지역 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출산준비교실 '태교 In the box'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4주간 8회로 진행되며 신생아 돌봄 교육, 모유수유 교육, 임신부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함께 운영 할 예정이다.

이번 출산준비교실 '태교 In the Box'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실천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고 임신부 각 가정으로 태교활동 재료 배송 및 비대면 화상 교육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밴드 개설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수업 출석 및 태교활동 후 SNS 인증샷을 남기면 육아용품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진

행을 통해 대면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다.

울진군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외출이 어려워진 임신부들에게 집안에서의 태교활동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육아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수현 울진군보건소장은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부들이 태교·태교로 안정된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제한된 일상생활로 답답하겠지만 소중한 태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과 건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농작물 한파 피해 정밀조사 행정력 총집중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시는 지난 1월 상순 기온이 최대 영하 13.6℃까지 내려가,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를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

농작물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농가와 마을 이·통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이용한 중인 농가는 농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자 감면과 함께 상환 연기도 실시하므로 피해 신고서 작성 시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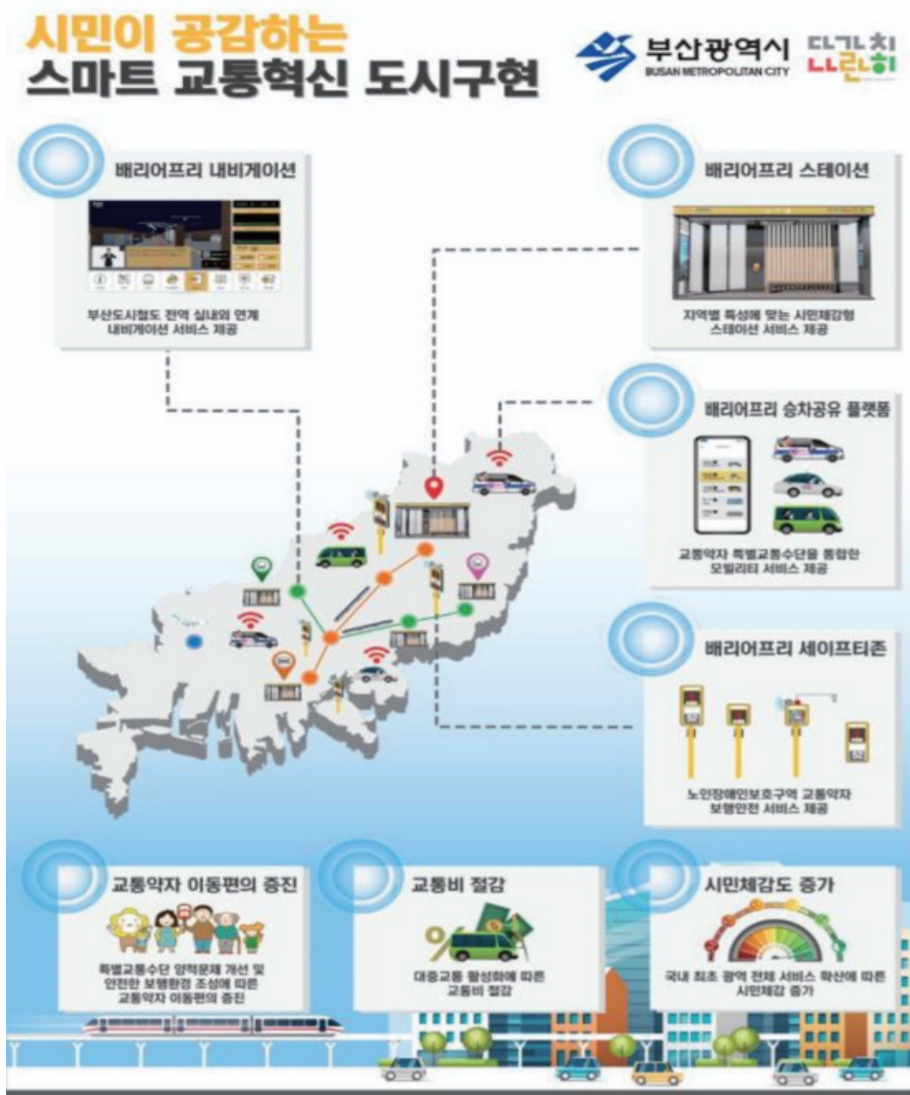
최기문 시장은 “피해 농가에서는 피해 신고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만큼 농가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부산시,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

스마트기술로 무장에 교통도시 부산을 만든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도시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는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2년간 2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예비사업 기간 동안 실증지역인 부산 동구에서 관련 기관, 기업들과 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서비스를 실증해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가 대전환하는 가운데 소외되는 계층·지역이 없도록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발굴, 추진했으며 비교통약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본사업에서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교통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비스의 완성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시민참여 방안을 더 확대하고 배리어프리 인증을 위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 글로벌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부산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세계 시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부산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밀양시, 삼문동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 '뺑'뚫렸다

가족들과 손잡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

밀양시는 최대 변화가이자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 주차, 잦은 접촉사고로 몸살을 앓던 삼문동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도로로 바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밀양시는 삼문동의 주차 문제를 공한지 주차장 조성하고 함께 시민 주차관행 개선운동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상가 주변의 공한지를 활용해 충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가 협의회와 삼문동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시민을 대상으로 '주차는 주차장으로', '주차후 착한걸음 5분걸기' 등 주차관행 개선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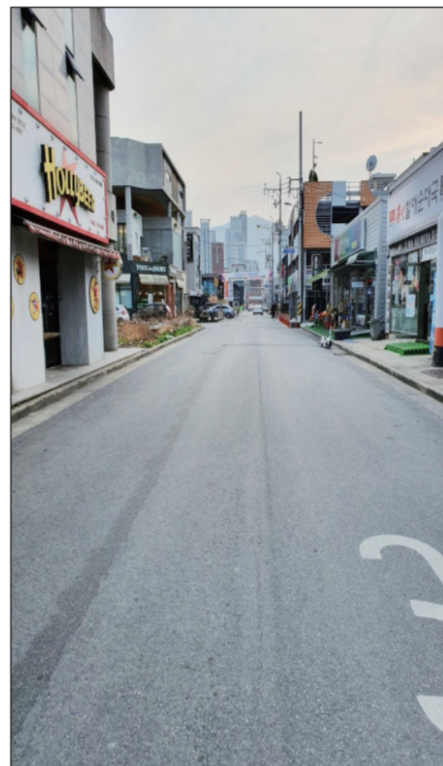
주차장에 주차 후 목적지까지 도보이동을 해준 시민들의 협조로 삼문동 도로는 차량교통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 구간을 자주 통행하는 시민들은 "확 트인 도로에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으며 상가 업주들도 "그동안 주차난으로 인해 방문을 꺼리

던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삼문동에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거창군, 대세로 떠오르는파크골프의 미래와 소통하다

제2창포원, 가조 구IC 폐부지 추가 파크골프장 조성 중

거창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거창군 파크골프협회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거창군 파크골프협회 신용학 회장을 비롯한 각 클럽별 회장, 임원 18명과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날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창포원 내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으로 각광 받고 있는 파크골프 시설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창포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가조 구 IC 폐부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신용학 협회장은 "파크골프 대회, 인프라 확충 등 파크골프협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하, 가조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이 조기 완공되어 동호인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인근 지역에서 재확산되는 등 장기화되고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거창군 내 파크골프협회는 11개 클럽에 700여명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클럽 1개와 공 1개만으로 경기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사태에도 공원과 거창스포츠파크 하천 둔치 등 녹지 공간에서 펼쳐지는 야외 스포츠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친환경농업·안전먹거리 홍보 나서

산청군이 지역의 대표적인 안전먹거리와 친환경농업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다.

19일 군은 전국 각지의 휴게소와 대도시 소재 전광판, 서울시 지하철은 물론 산청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의 비밀'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 송출은 산청군이 지난 2019년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제작한 '정직한 땅의 선물 -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의 비밀'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것이다.

군은 22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25초 분량의 홍보영상으로 재편집해 산청 친환경농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활용한다.

홍보영상은 전국 휴게소 56곳의 DID와 전광판 4곳에서 6~7월, 10~11월 4개월간 송출된다.

또 3~5월 3개월 동안은 서울시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사내 무빙워크와 지역상생홍보관에서 상영된다.

22분 분량의 전체 다큐멘터리 내용은 산청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축순환농업이란 친환경농업 경작지의 생산물 중 벼짚을 친환경 한우의 먹이로 활용하고 그 벼짚을 먹은 소의 분변을 퇴비로 만들어 다시 친환경 경작지의 거름으로 쓰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자연순환농법을 말한다.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한우는 동물복지지향 친환경축산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조건에서 사육된다.

특히 분변 또한 친환경퇴비로서의 성분검사 후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친환경농법 경작지에 순환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것은 물론 사람과 자연,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획 증가고 있다"며 "이번 '산청군 친환경농업 홍보사업'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의회**

전남복지재단, 돌봄서비스 고도화 연구 활발

6월 사회서비스원 개편 앞두고 사회서비스시설 실효성 높은 지원 기반

전남복지재단이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확대 개편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요양원을 비롯한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간접 지원하면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단위로 순차 설립되고 있다.

전남은 전남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단은 본격적인 개원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순천시와 함께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에서는 순천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93.3%가 일상생활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14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8.7점으로 나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또한 아직 서비스 양이나 제공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사업 고도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인 종합재가센터의 초기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인터뷰 등

을 통해 전남 관내 재가서비스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타 시·도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특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우선 설치 민간시설과의 경쟁구도 지양 및 사각지대 보전적 개념 접근 제 공인력의 적정한 시급제도 우선 마련 거점지역 시범사업 우선 추진 후 효과성 파악 등 방안이 제안됐다.

재단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원 개원 이후 도민들에게는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민간시설엔 실효성 높은 지원과 교육·컨설팅을 할 방침이다.

신현숙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민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앞두고 다양한 연구 수행과 매뉴얼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빈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이용섭시장 "실전같은 훈련으로 백신접종 완벽 기해달라"

예진-접종-이상반응 확인 등 운영절차 전 과정 살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오전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서구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과정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광주시와 서구청,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했으며 모의훈련 안내, 체크리스트 현장점검, 시나리오 모의훈련 점검, 평가위원 의견 종합, 종합의견 전달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운영요원 22명과 접종 대상자 30명이 참여해 사전준비→대기→예진→접종→전산입력→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실제상황에 준하는 접종센터 운영절차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됐다.

이용섭 시장은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이상반응 확인, 주사기로 백신을 뽑는 상황 등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10여일 전부터 광주지역 확진자가 하루 1~2명 선으로 대

폭 줄어 다행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다"며 "우리의 어깨에 150만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실전같은 훈련으로 운영체계에 완벽을 기해달라"고 당부 했다.

이날 모의훈련에서는 이동 동선, 물품리스트, 응급키트, 인력배치 등의 사전준비 센터 내 플드체인 유지, 해동, 분주 등의 보관 및 전처리 예진 및 접종실시, 이상반응 발생 등 주요 과정별 소요시간 집중인원 분산 등 장소 혼합 방지, 시간당 적정인원 추산 원활한 정보시스템 가동 및 각종 장애시 처리 증증이상 반응, 정전 또는 냉장고 미작동, 전산마비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치러졌다.

한편 광주시는 전체 인구 145만여명의 70%에 해당하는 101만50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1분기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등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접종



을 진행 중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21만 명에게 접종하며 3분기에는 만성질환

환자, 성인, 4분기에는 이의 미접종자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덕윤기자

여수 찾은 이낙연,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공감"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는 동서 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 원장은 지난 18일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뒤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다음 일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를 찾아 지역 시민들과 여수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대



한 공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들었다.

첫째,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는 동서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갖

는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선 현실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환경부가 유치지역 결정을 늦추지 말고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류중구 COP28유치위원회 자문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2023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위해 해수부에 여수항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데 협조하고 전라선 고속철도화를 위해 SRT수서발 고속철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해양바이오 생산시설 구축 박차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개념설계 착수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념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주재로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과 자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념설계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3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해 완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을 위한 원료 소재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가공 산업에 머물러 있는 해조류산업이 바이오산업 소재 활용으로 해조류의 고부가 가치화와 지역 내 다양한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1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념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 착공,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해수부와 전남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설계에서부터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임영훈 해양수산생명과장은 "해양생물 특히 해조류의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 개발의 시작 단계로 본 시설을 활용한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개념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적의 기업 지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우철 완도군수는 "본 사업 추진으로 해조류의 고부가 가치가 이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지자체 소멸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 어촌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2년 준공 예정인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에 기업 부설 연구소 10개와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해 다양한 연구 성과 창출과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을 연계해 연구에서부터 상품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근대역사도시목포, 역사공간 보존·활용에 속도낸다

근대건축자산 보수·정비·문화예술공간 등 공적 활용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만호·유달동 일대 11만4천여㎡로 2018년 국내 최초로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의 관공서 주거, 상업시설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노동 운동, 소작 쟁의,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당시 민중의 저항이 펼쳐진 공간으로서 3대항 6대 도시였던 과거 목포의 역사가 응축돼 있어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도 불린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목포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구일분영사관,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등 목포의 근대를 엿볼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며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목포의 매력과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자산을 보수·정비하고 이를 역사문화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시는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과 근대건축자산 정밀실측 용역을 실시 중이다. 기록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다각도로 스토리텔링해 목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근대역사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올해 안에 원도심 일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국·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과 홍보 등 실용적인 안내를 위한 종합활용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제도적, 행정적 장치 뿐만 아니라 근대역사문화자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도 차근차근 마련해가고 있다.

시는 근대건축자산 전수조사와 문화재청 및 자문위원회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공간 내 공적 활용 가능한 건축물 총 10채를 매입 완료했다. 호남 최초 민족계 은행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과 근대 가장 변화했던 조선인 가게 '구 갑자옥 모자점', 1950년대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해안로의 '구 대광전자 2층 상가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원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수하는 한편 전시 문화 콘텐츠를 확충해 관광객에게 목포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근대역사공간의 핵심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갑자옥모자점을 비롯한 매입 건축물들도 건축 당시 원형 복원을 목표로 보수·정비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거리 곳곳에 근대적 경관의 야외공간을 조성해 휴식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화석화된 지

역이 아니라 현재 주민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다.

주민과의 협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열쇠인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건물의 입면, 간판 등 외관 수리에 지침이 되는 경관 보존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근대역사공간 활성화에 민·관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또 전선 지중화, 가로경관 개선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문화재 보수, 경관 정비, 공간 활용 등 사업 추진에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목포를 근대역사도시 조성사업의 국내 제일 성공 모델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동부권개발지리산허브밸리 총괄계획가위촉 고도화 탄력

전라북도 동부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에 총괄계획가가 위촉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남원시는 자연과 감성을 주제로 하는 정원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총괄계획가 도입을 핵심으로 분석하고 백제예술대학교 김재현 총장과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총괄계획가는 환경과 디자인적 요소가 강한 공공 건축물의 경우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디자인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총괄조정 및 자문을 하며 관련분야의 중앙단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지원하게 되어 조성 과정과 이후 관리 운영체계가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건축분야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김재현 백제예술대 총장은 산업

디자인과 미술학을 전공했으며 한국공간디자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남악 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 및 신세계백화점과 전주예수병원 등 다양한 공공 및 상업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식물조경분야 김인호 교수는 서울대 조경학 전공으로 신구대 식물원장을 다년간 역임했고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회장, 서울정원박람회 및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을 재임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수목원과 서울시마곡식물원의 운영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과 함께 현장에서의 높은 실무기술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감각적 디자인과 함께 조성 후 식물생육 관리운영 체계를 고려한 시공으로 사업 전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며 특히 자연과 힐링의 감성적 매력으로 허브밸리만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진안은 젊고 미래는 밝다

진안군 청년협의체 아심찬 새 출발, 제1차 정기 총회 개최

진안군 청년협의체는 지난 18일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제1차 청년협의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진안군청년기본조례에 의해 청년으로 규정된 만18세에서 만45세 이하의 진안군 거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춘 문화콘서트를 시작으로 2020년 우수회원 표창 수여, 2020년 사업실적 보고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회칙 개정 및 임원 선출 등이 진행됐다.

진안군은 타지역으로 청년 인구 유출과 공동체 의식 저하로 지역 소멸 위기와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8년 9월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청년협의체를 조직해 운영했고 지난 2년간 100여명의 회원 운영 및 청년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 날은 협의체 조직 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 그 의미가 더해졌다.

진안청년협의체 '월랑'은 옛 백제시대 진안의 지명이자, "넉을 월", "물결 랑"의 뜻으로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멋지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진안 청년들이라는 뜻이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청년아카데미, 문화콘서트, 플리마켓, 스마트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새롭게 마련된 진안을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있는 청년공간에서 진안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우화도시 재생사업에서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청년취업아우스를 건립 추진 중이며 청년주거비용 지급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진안다운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2회 연속 청년협의체 회장으로 당선된 육성용씨는 "앞으로 청년 회원 및 행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진안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안 청년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종철/이희철/기자

익산 수변자원 활용 '도심 힐링공간' 확대

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 6월 확장 개장, 수변 휴게공간 탈바꿈

익산시가 도심 속 수변 자원을 활용한 산책로와 힐링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에게 인기 명소로 각광받았던 신흥공원 일원 '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을 확장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현울 시장은 지난 18일 신흥공원을 방문해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 등을 점검하고 신흥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휴게공간 조성 현황을 살폈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에 조성된 신흥공원 일원 산책로를 연장하고 조경 등을 정비해 오는 6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향후 신흥공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힐링공간을 조성해 도심 내 대규모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원이 조성되면 도심 내 수변공간이 부족했던 익산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는 물론 명품 수변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대표 힐링공간인 신흥공원은 196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중 일부가 중앙체육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을 위한 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집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 가량 매입이 완료됐다.

지난해 시는 매입한 부지에 우선적으로 약 1km 구간의 산책로와 야외광장, 조경 등을 조성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했다.

정현울 시장은 "지역의 수변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신흥저수지 일원에 산책로 조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도심 속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명품 수변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제14회 김제모악산축제 4. 9. ~ 4. 11. 3일간 개최

3. 22일부터 사전접수 시작

김제시는 당초 4월 2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던 제14회 김제모악산축제를 한 주 연기해 4월 9일부터 3일간 치른다고 밝혔다.

4월 9일~4월 11일 3일간 모악산 일원 및 온라인상에서 안전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는 제14회 김제모악산축제는 '김제의 산, 모악산의 우리'를 주제로 모악산의魅力を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 3개 프로그램의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자동차 안에서 안전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은 4월 10일부터 2일간 모악산으로 시민을 찾아가는다.

상영영화는 대중적인 코미디 영화인 "미션 파서블"과 가족과 함께 보면 좋은 "세자매"로 구성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회당 자동차 기준 4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상금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집콕 사생대회', '청춘 가요제'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집콕 사생대회'는 모악산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로 사전 접수한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스튜디오 현장의 사회자가 대형 LED 전광판의 화면으로 참여자를 맞이하며 행사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참여자를 심사해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청춘 가요제'도 개최돼 전라북도 스타 상금의 주인공을 찾을 예정이다.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상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응모하면 예선을 치른 셈이다.

심사위원단의 참가영상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가 결정되며 결선은 온라인 스튜디오 현장에서 생생하게 진행된다.

사전 참여자 모집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모악산축제가 코로나19 위기 속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위로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담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군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현대화 추진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확충과 응급 입원병실 100병상 추가

전라북도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등 진료시설 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된 군산의료원의 진료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취약계층 진료와 공공보건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최근 의료환경을 반영한 종합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응급의료센터에는 감염방지를 고려한 감염격리실, 출입구, 환자분류소와 그 밖에 보호차 대기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응급입원병실 100병상을 추가해 응급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한, 수술실은 진료과의 특성에 맞는 수술장비 도입과 쾌적한 수술환경을 조성해 질 높은 의료혜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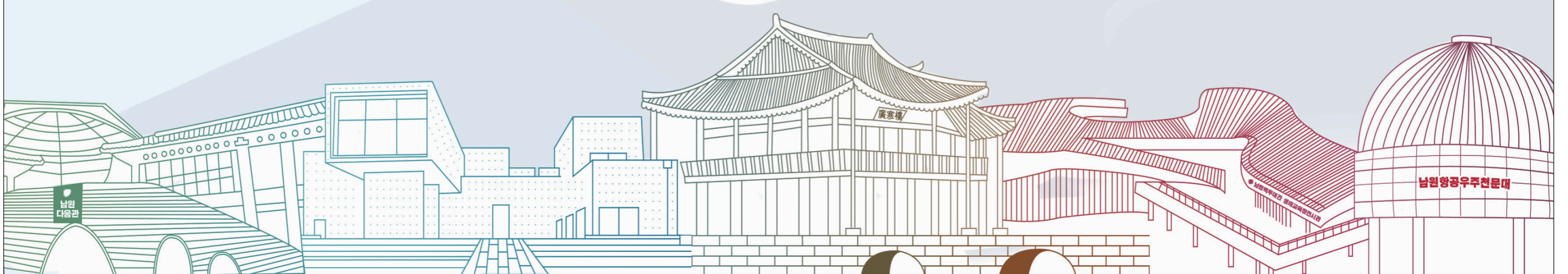
제공하고 수술실과 외부와의 차단시스템을 강화해 감염위험률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 전국 최초 '읽기유창성지원시스템' 구축

'빠르고 정확한 읽기 향상 지원으로 한글교육책임제 완성 기대'

강원도교육청은 18일 강원지역 초등학교의 읽기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읽기유창성은 한글해독 이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은 읽기활동의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1~3학년 단계에 제공해 읽기부진을 해소하고 한글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해부터 전문가 관 위탁 정책연구로 추진해, 1~3단계별 읽기자료 개발, 웹 기반 읽기진

단 도구 개발, 읽기녹음 자료 개발의 광범위한 실험연구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표집 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읽기진단을 추진함으로써 강원도 학생들의 읽기발달의 경향성을 파악해 적용했으며 한글문해 전문교사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소재의 읽기자료를 개발하는 등 실제적인 읽기유창성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산출했다.

무엇보다 웹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PC와 모바일로 학생들의 읽기연습이 가능하며 읽기자료

와 음원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학교현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사 전용 로그인 방식과 오픈소스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진단과 심층 지도는 담임교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온라인 원격수업과 가정에서도 읽기연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도교육청 김춘형 교육과정과장은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강원도교육청 한글교육책임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글해독과 읽기향상을 공교육에서 책임있게 보장하는 체제를

마련해,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배움을,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만 75세 이상,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18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종 동의서 접수

춘천 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접종에 동의하고 접종센터 내원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접종을 한다.

대상자는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약 2만4,000명이다.

백신은 화이자며 접종 장소는 봄내체육관에 설치한 '춘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이다.

예방접종센터 방문 접점이 어려운 경우 추후 접종 방식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종 동의서를 접수한다.

지역별로 이동장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며 접종 동의자에 한해 예진표 작성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

또 접종 후에는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방문 등을 통해 최소 3일간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현했을 때는 보건소 코로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접종 동의서 작성 홍보를 위해 마을 방송과 아파트 구내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8일 기준 춘천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수는 5,132명이다.

최재은기자

태백시,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비대면 개최

태백시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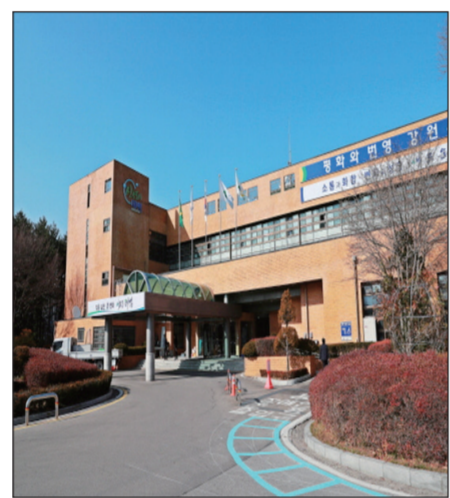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 개최는 취소하고 온라인만을 통한 서해수호의 날 홍보 및 특별사진전 개최로 갈음할 예정이다.

3월 19일부터 온라인 및 현수막 게시 홍보를 시작해 행사 당일인 3월 26일까지 지속하기로 했으며 기념식을 대신해 강원동부보훈지청 제공 사진을 시청 현관에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틀간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번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을 깊이 추모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되어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으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이다.

최만식기자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추가 모집

단독형 2세대 추가 모집 ... 오는 3월 25일까지 신청

홍천군이 2021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단독형 입교자 2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입교자에게는 31㎡의 단독형 주택과 165㎡ 텃밭이 각각 제공되며 4월중 입주해 올해 12월까지 머물며 귀농 교육을 받게 된다.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15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세대별 관리비는 개별 부담이다.

지원 자격은 홍천군으로 이주해 귀농을 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일 현재 농어촌 이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제대군인과 새터민의 경우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홍천군 체



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발표는 3월 29일 홍천군 농

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게 개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원기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 원주 시민공유회 개최

3월 25일부터 2주간, 12개의 주제로 시민과 함께 14회에 걸쳐 분산 진행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그림책센터 이담 등에서 '문화도시 원주 2021 시민공유회'를 개최한다.

법정문화도시 1년 차인 2020년의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도시정체성과 우리의 역할' 등 12개의 주제로 14회에 걸쳐 분산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사업 결과, 사업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문화도시 시민공모사업, 원주테이블 운영, 시민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에 사무국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참여만큼 원주의

문화가 성장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 본격화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6일 강릉~제진 단선철도건설 사업 4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2027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2조7,408억원이 투입되며 강릉에서 고성까지 총연장 111.7km 단선 노선 신설과 6개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입찰공고는 총 4개 공구가 터키방식으로 발주됐다.

강릉시 구간은 1, 2공구로 1공구의 경우 사업비는 2,838억이며 강릉시 박월동과 교통 구간 7.7km이고 2공구는 사업비 2,200억으로 교통에서 연곡면 방내리까지 12.4km를 연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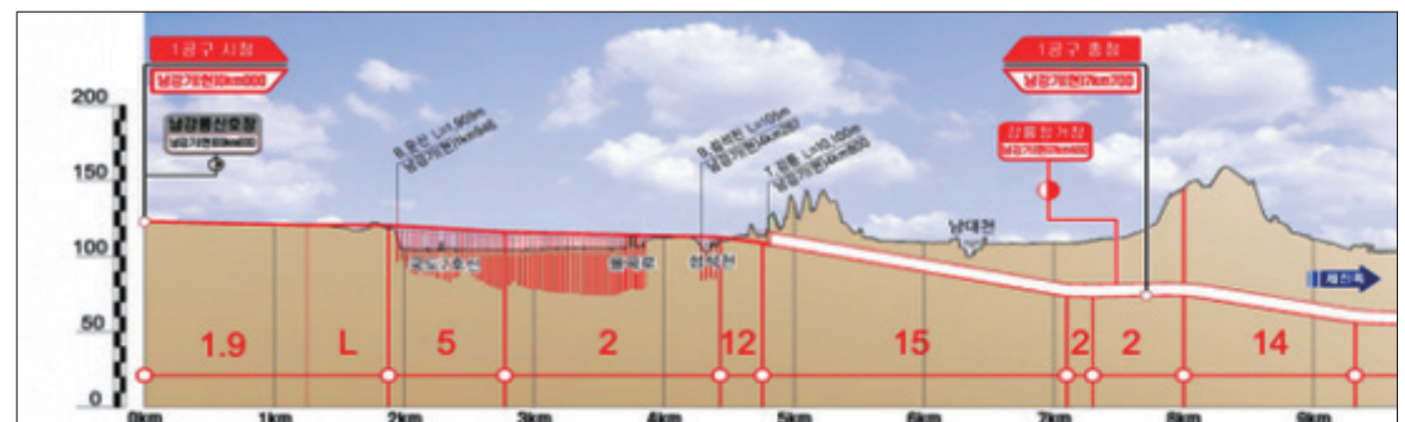
특히 1공구 입찰공고에 따르면 강릉역 구간의 우선 시공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착공이 예상된다.

향후 사전적격심사와 본입찰을

추진해 8월 중순 업체선정 예정이며 낙찰사는 기본설계 3개월, 실시설계 12개월, 본공사 64개월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및 국토교통부, 강원도,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승원기자



양양군, 치매예방 AI돌봄 로봇 '효돌이·효순이' 서비스

양양군 보건소는 돌봄이 필요한 경도인지장애에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AI돌봄 로봇인 '효돌이·효순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 로봇 '효돌이·효순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쉽터운영 중단, 외출감소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음성과 터치방식으로 작동되는 돌봄 로봇은 목과 가슴에 달린 센서로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지정된 시간동안 동작감지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느껴지지 않으면 보호자 또는 담당자에게 자동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다.

식사·약복용·치매예방제 등 음성알람 기능과 귀, 손, 허리 등 특정 부위를 만지면 안부인사, 노래, 말벗 등 다양한 정서안정 서비스가 지원되며 퀴즈, 화상놀이, 옛 이야기 등

치매예방 뇌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처럼 돌봄 로봇은 활기찬 안부인사나 대화 등의 상호교감이 가능해 치매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보호자 휴대폰으로 어르신 안부를 묻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내면 '효돌이·효순이'를 통해 어르신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도 갖췄다.

권성준 양양군 보건소장은 "홀몸 어르신의 경우 보통사람에 비해 우울증 1.5배, 치매 유병률 3.5배, 자살 위험률은 6배까지 높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전반의 변화 속에 한발 앞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양양군, 저소득층·복지시설 대상 LED 조명등 무상 교체

양양군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LED조명은 백열등, 형광등 등 기존의 조명기구에 비해 약 50% 정도의 전기 절감에 가능하고 수명이 50,000시간 이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올해 5,670만원의 예산을 들여 LED조명등 무상 교체사업을 신청한 관내 저소득층 35세대와 현북면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

로 LED 조명등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조명등 교체 공사와 함께 전·후 전기시설 안전검사가 병행되며 향후 1년 간 하자보수와 월별 에너지사용량과 절감량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7년 동안 4억 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306가구, 복지시설 36개소의 LED 조명을 교체해 연간 500여만원의 에

너지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전형복 경제에너지과장은 "LED 조명등 교체를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비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준비 '착착'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청북도는 19일 오후 2시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충북 신산업 육성'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 운영 방안' 2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청주시, 과기부 관계자와 고인수 포항가속기연구소장, 김현정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장 등 가속기 전문가, 정책연구원,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 후 그간의 진행성과를 설명하고 실행전략 및 핵심 전략과제 도출의 적정성 등 연구성과 점검과 최종 결과물 산출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용역 수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산업 육성 정책연구는 7월까지, 활용지원센터 정책연구는 4월까지 진행

된다.

수행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검토·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는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세계 최고 사양의 고성능 대형가속기로서 미래 첨단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 극복과 선도기술 활용 신성장산업 육성에 활용되는 과학기술분야 핵심 기반시설이다.

충북도는 방사광가속기의 오창 입지에 따라 가속기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 및 가속기 기반 충북 산업과의 연계·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청주를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비전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라며 "향후 구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후속 정책을 신속히 발굴·추진해 가속기 구축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청주시, 춘기조립 사업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청주시가 19일 미원면 미원리 소재 체육공원에서 조립사업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올해 춘기 조립사업에 투입되는 청주 산림조합, 사업 감리, 산림사업 법인 업체 등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조립지 작업 시 풀베기, 덩굴 제거 등에 사용되는 엔진톱, 예초기 등 기계 장비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및 기상에 따른 탄력적인 작업시간 운영 등 안전 사고예방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산림사업은 작업현장 자체에 장애물이 많고 다루는 장비들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눈·비·바람 등의 기상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에도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다.

또한, 조립사업 및 숲 가꾸기 산림사업 시 사용되는 휘발유 등 유해인자들에 대비해 취급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해 취급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만식기자

계룡시청 운동경기부, 필 한방병원과 MOU

지도자와 선수에 우대혜택 제공 및 공식행사 의료지원 예정

계룡시청 운동경기부는 소속 선수들의 부상관리와 컨디션 관리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한방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18일 오전 진행된 협약식에는 류재승 단장과 김은수 펜싱팀 감독, 윤제필 병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했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계룡시청 펜싱팀 단원의 한방 및 양방치료 우대혜택 계룡시청 펜싱팀 주관 행사 시 의료지원 및 홍보 건강강좌 지원 등으로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는데 뜻을 함께했다.

류재승 단장은 "그간 펜싱팀 선수들이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우리시 펜싱팀 선수들의 성적 향상 및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 소재한 필한방병원은 메이저리그, LPGA, PGA의 유명 스포츠스타들의 주치의로 활약한 바 있는 윤제필 원장이 서구 월평동 신사유적지 옆에 개원한 한·양방협진

병원이다. 올해로 개원 4주년을 맞았으며 농어촌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계룡시체육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원호기자



당진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대상 임차료 지원, 3억3600만원 확보

당진시가 지난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안지청과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서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중 해당 사업에 지원해 올해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당시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인 근로자로 전체 신

정 근로자 중 20%는 재직기간 6개월 이내의 신규 채용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의 사업참여신청서 등 신청서식 일체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검증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기업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당진시청 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3600만원을 확보해 관내 중소기업체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공주시, 송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착수...백제 왕릉 진정성 회복

백제 웅진기 왕릉의 상징적 규명을 위한 조사 시작

공주시는 19일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송산리고분군에서 고유제를 열고 백제 웅진기 왕릉의 구조와 상징적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고유제는 백제왕과 지역주민에게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조사단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준관 부시장과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송산리고분군 중장기 발굴조사의 첫 단계로 일제강점기에 조사됐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29호분을 포함한 남쪽으로 넓게 뻗은 정비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계별 연차 조사를 통해 송산리고분군의 분모습을 찾아 백제 왕릉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향후 고분의 올바른 복원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1927년, 1932~1933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가루베지온이 다수의 고분을 조사했지만, 조사내용은 제대로 보

고되지 않았다.

이후 1971년 6호분의 배수로 공사과정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되어 왕릉 원으로서 송산리고분군의 위상이 제고됐다.

특히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의 무덤 가운데 도굴되지 않고 능의 주인공과 축조연대, 내부구조, 부장유물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으로 문화재 가치가 뛰어나 발굴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주시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19년 '공주 송산리고분군 중장기 학술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앞서 송산리고분군 일대 고분 분포 현황조사, 지하물리탐사, 라이다측량 등 다각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존에 정비된 7기의 고분 이외에도 추가로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6호분 서쪽에 인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29호분의 대략적인 위치를 재확인하는 등 중심 고분군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김정섭 시장은 "올해는 무령왕릉 발굴 50년, 무령왕의 경위강국 선포 15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라며 "이번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백제 웅진기 왕릉의 상징적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계 유산인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역사적 가치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이안 엑소더움 에이펙스

진접읍 크낙새로타리클럽, 취약 계층 위한 식료품 꾸러미 전달

남양주 크낙새로타리클럽은 18일 진접읍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한 식료품 꾸러미를 남양주시복지재단과 북부희망케어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노인·장애인 및 청소년들이 조리하기 쉽고 보관이 용이한 가정간편식으로 구성했으며 음식을 매번 조리해서 먹기 버거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와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혼자 있어야만 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현남 크낙새로타리클럽회장은 “우리 주변 소외계층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웃 사랑 나누기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을 돕는 일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운 진접읍남행정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뜻있는 기부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있다 나눔 활동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창원시, 이노비즈협회 창원지구회 회장이 취임식 참석

허성무 시장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혁신이 창원시의 경쟁력”



창원시는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 성산구 중앙동 호텔인내서널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창원지구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제3대 이재완 회장에 이어 제4대 윤찬현 (㈜영동테크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력 3년 이상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속한 단체다.

강원 광주·전남 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 전북 제주 충북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약 1만8400개 정도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경남지회는 창원을 비롯해 김해·합안·서남부·양산 등 5개 지구회, 1,237개사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5개 지구회는 2008년 2월 창립했고 이 중 창원 지구회에는 391개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창원지구회 등이 속한 경남지회는 도내 이노비즈 기업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도모, 기술혁신역량 및 경

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시니어인턴십 등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회원사 권익 강화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회보 제작,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행사와 회원기업 지원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신임 윤찬현 창원 지구회장은 “지역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강화

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창원지구회 활성화와 지역발전

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정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대부분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그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만큼,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경쟁력으로 더욱 도약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정읍 명장 1호 서선민 헤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19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100만원 전달

정읍시 명장 1호 서선민 헤어는 19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선민 원장은 지난 2013년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다섯 번째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 교육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선민 원장은 “장학금은 고객들의 앞머리 커트 비용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고객들과 함께하는 기부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나눔의 물결을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그 정성과 마음에 감사드리며 지역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최하은기자



생연2동 착한식당 삼쟁이풍천민물장어, 복지사각지대 후원 시작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삼쟁이풍천민물장어’는 지난 18일 생연2동 착한식당에 신규로 동참해, 저소득 및 독거어르신 가구를 위해 매달 고등어구이 10세트를 후원하기로 했다.

김금자 대표는 “전부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에 앞장서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하고 보람차다.

우리 가게의 고등어구이는 숯불로 구워서 육질이 촉촉하게 살아있

는 것이 특징인데,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생연2동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일 생연2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새롭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김금자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을 희망하는 식당과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연계하고 민간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봉사 실시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사업을 추진하고 결연대상자 30가구에 결연이 가득한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불고기, 갈비, 도라지무침, 동태전 등 정성스런 밑반찬을 준비하고 결연을 맺은 3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의 안부를 확인했다.

안경녀 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웃들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밑반찬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상만 생연1동장은 “자발적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새마을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원들께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사랑의 나눔 릴레이’



안산시장애인체육회는 18일 안산와동중학교에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사랑의 나눔 릴레이’를 이어갔다.

안산시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하는 사랑의 나눔 릴레이는 이사회가 후원금을 마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학금 및 후원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달에는 본원초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안산 와동중은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

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교육활동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사랑의 나눔 릴레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안산시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취약계층 장애인들과 저소득장애인가정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장, 취임식 개최

8대 이미원 협의회장 취임, 수석부회장에 박인선, 여성회장에 이기정 선임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에서 지난 17일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임원진과 회원들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자 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난 2월에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이미원 협의회장을 제8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한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는 박인선 수석부회장, 이기정 여성회장 또한 함께 임명했다.

이미원 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껏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바르게살기운동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올 한해도 진실, 정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건 강한 양평군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미원 협의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가 우리 고장 양평을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 선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동두천시민 정경희 씨, 이웃돕기 성금 5천만원 기부

동두천 상패동에 거주하는 정경희 씨가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서울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중 5천만원을 동두천시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정경희 씨는 평소에도 노인복지관에서 자살예방도우미 자원봉사,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에 매월 10만원 정기후원하는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보살펴왔다.

정경희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하다가 정리한 후, 2008년 동두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한 후 주변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지내다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싶어 성금 5천만원 기부를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

로 동두천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면밀히 살피며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홍 부총리, 美재무장관과 첫 통화...경제·금융 협력강화 논의

홍 부총리 “양국 정부 핵심 경제의제·정책기조 공통분모 많아 협력의 여지 커”

옐런 장관 “한국경제 역동성·회복력 높이 평가...그린뉴딜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 환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간 경제·금융 현안 및 협력강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통화는 옐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제78대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옐런 장관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글로벌 경제·보건위기를 극복하는데 옐런 장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미대사관 근무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옐런 장관의 명성을 언급했고, 옐런 장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방문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의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통분모가 많아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양국이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이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사회 협력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바이오 ▲기후변화대응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첨단기술 ▲다자주의 복원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옐런 장관도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

감하고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재건 노력을 지지하며 미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기대한다”며 “특히 다자협력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미국의 선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금융협력 강화 및 디지털 세기후변화대응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도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양국이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도 이란 관련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만식기자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에 부산·제주·강릉 등 6개 지역 선정

스마트 기술로 도시 문제 해결...“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시티 육성”

스마트 기술로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에 전국 6개 지역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와 제주, 강릉, 광양, 서산, 원주 등 6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1년간 11개 지자체가 예비사업을 벌인 결과 최종 6개 지자체가 본사업 대상지로 뽑혔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선정됐다.



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나 전동킥보드 등에 충전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 허브’로 전환, 공유모빌리티를 대어·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릉은 시 전역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 연결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선망 체계를 현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연계해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한다. 부산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내비게이션은 대중교통 길찾기 시간을 평균 25%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시 전역 비탈길 등지에는 편안하게 대중교통 수단을 기다릴 수 있는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이 본격 구축된다.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산업·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

다. 또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감지, 대응하는 음성 인식 영상보안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이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1년도 신규 스마트챌린지 사업지도 선정 중이다. 타운 및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이달 말, 시티 챌린지 사업은 4월 말까지 총 16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입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교통약자 배려, 환경재해 예방, 생활편의 등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성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스마트 시티 효과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모빌리티 혁신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과기부, 금융·의료 등 8개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

정부가 국민이 마이데이터를 통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의료·생활소비·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개 분야에서 관련 실증서비스를 선정·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응급 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소상공인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벌여왔다.

또한 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기획, 안전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설계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교육 과정 신규 개설, 컨퍼런스 개최 등 국민 인식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 9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교통, 소상공인, 복지, 생활, 학술 등 9개 분야에서 대형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기관을 연계해 17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개인데이터 플랫폼(PDS) 기반 실증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개인데이터플랫폼은 개인이 본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Personal Data Storage)이다. 이를 통해 유전체, 교통정보 등 세

로운 개인데이터를 발굴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지원과 같은 공공문제에 기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핵심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 지원, 인식 확산 등 전 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실증 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실증되고 획기적 서비스로 이어져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 영역으로 확산·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내용, 공모 일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da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은기자

4차산업 기술 분야에 집중...민군기술협력에 2059억원 투입

올해 사업 시행계획 확정...민간 파급력 높은 유망 국방기술 발굴·지원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신산업 분야 과제사례>

<p>IoT 기반 함정 정비 플랫폼</p> <p>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21~’25, 239.5억원)</p>	<p>위성 기술</p> <p>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 (’20~’25, 76.5억원)</p>
---	---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력회의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간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전은 30개(신규 12개), 규격 표준화는 6개(신규 3개)다.

먼저, 올해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이를 위해 미래수요 창출 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 시범 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신속 시범 획득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시범운용함으로써 군에 도입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이

다.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 연구개발(다부처 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실증기록(Trackrecord)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또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올해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적용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 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 이전 상용화 지원사업(가칭)에도 87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총 2개 과제, 13억원 투자)되었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 연구개발(R&BD)을 지원한다. 1단계는 실용화 기술 개발·시제품

개발, 2단계는 상용화기술 개발·제품 개발이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주관기관 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 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3월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특사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사전 예방과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목적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

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장

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공주시,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 주력

공주시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유소 28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최근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들 주유소는 최근 2년 내에 위반행위가 적발chOrRj나 대표자가 변경된 주유소 그리고 SK, GS, S-oil, 현대 등 메이저 정유사 상표를 달지 않은 비상표 주유소 등으로 점검

과 특이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과 함께 비상표 주유소 12곳에 대해 '석유품질인증제도' 가입을 적극 독려했으며 그 결과 5개소가 인증업소로 지정됐으며 5개소는 진행 중이다.

김정태 경제과장은 "이번 단속 결과 다행히 특이한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점검 및 관리를 통해 석유제품의 정품 및 정량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대마 재배 및 밀반입한 마약류 판매한 54명 검거

제조·판매책 5명 구속, 생활속 확산 차단

부원원미경찰서(서장 엄성규)에서는, '20. 2월경부터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판매한 5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49명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하였으며, 특히 총책 및 제조책 3명은 판매책 2명과 공모하여 투약자 49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대마 328그루, 대마잎 820g, 해쉬위요일 6kg, 엑스터시 195정, 필로폰 17.39g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성주군, 쓰레기 불법투기 '꼼작마' 전 지역 단속 나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

성주군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주민 홍보 강화와 불법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히 기하고자 지난 3월 5일 초전면을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자원순환사업소 직원과 읍면 환경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지자체의 소중한 자산이고 경쟁력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군민들도 성숙한 주민 의식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깨끗 하고 행복한 성주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상황' 점검

경기남부청, 3기 신도시 8개 지구 중 5개 지구 관할, 특별수사대 운영(총 82명) 및 국제청 파견(2명) 등 협의체계 구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 남구준)은 '21. 3. 18.(목)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수사부장, 반부패경제수사대장등 도경찰청 특별수사대 지휘부과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기남부청은 3기 신도시 8개 지구 중 5개 지구를 관할하며 가장 먼저 수사체계가 갖추어진 곳으로,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불법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경기남부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 (3기 신도시)광명시흥, 하남교산, 과천, 안산장상,부천대장(이상 경기남부), 인천계양, 남양주양숙, 고양창릉 등 총 8개 지구

경기남부청은 3월 10일부터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대'(대장: 수사부장 경무관 송병일)로 확대하여 △총괄팀, △수사팀,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법률지원팀을 운영(총 82명)중이며 국제청 인력 2명을 파견받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경기남부청 특별수사대는 전일 국토교통부, LH 분사 등 6개소를압수·수색하고 조만간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존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비롯해 '경찰 신고센터'(국가수사본부 설치)에 접수된 신고사건이나 고소·고발사건 등은 접수초기부터 진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 수집하는 등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 규명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수/기자

임실군, 봄철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대응

수송·산업·생활부분 중점 특별 점검

임실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집중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봄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서 일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주범 중 하나이며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공장, 발전소, 자동차의 매연 등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도 다량 발생한다.

이런 원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립한 임실군 '봄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계획'은 수송·산업·생활 3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특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송 부분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 부분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개소와 관공 공사장 3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생활 부분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점검 활동을 강

화하고 생활 주변 집중관리도로에는 노면청소차를 이용해 도로면 청소를 일 2~3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기관, 노인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집중 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3월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추진해 미세먼지를 조기에 개선하겠다"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군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홍성군,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전면전'



홍성군이 매년 봄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군은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전면전에 나선다.

군은 충청남도 및 군 특사경팀과, 환경팀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다음달 9일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나선다.

또한 건설공사장 및 대규모 공사장의 근무시간 단축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의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집중관리구역과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차와 노면청소차의 운영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하는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펼치

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안내문자 발송, 전광판 송출 등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발령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군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 2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등 900대의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6억원으로 LPG 화물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자동차 보급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전개하며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자칭 80년대 GD' 홍서범, "동갑 마이클 잭슨 춤과 합작." '니체형'에 영감 받은 신곡 무대

사유리, "EQ 높고 술, 담배 안 하는 정자 이력 원해" 오상진 메시지에 눈물 왈각한 사연

남들보다 한발 앞선 선구자 4인 홍서범, 사유리, 제시, 후니훈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거침없는 마라맛 '위풍당당' 토크와 감탄을 부르는 능력치 폭발 무대로 안방을 '라스 홀릭'에 빠트렸다.

엄마가 되어 돌아온 사유리는 "무서울 게 없다"며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까지의 과정과 엄마가 된 소감을 들려줘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



제시는 '제시다운' 스웨이가 가득한 신곡 무대 '어떤 X'를 '라디오스타'에서 최초로 공개해 안방을 '방구석 클럽'으로 만들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1호가 될 수 있어'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홍서범, 사유리, 제시, 후니훈 그리고 스페셜 MC로 김영철이 출연했다.

1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5.8%로 시청률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기록했다.

또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 역시 동시간대 예능 1위에 올랐다.

'1호가 될 수 있어' 특집은 홍서범부터 사유리, 제시, 후니훈까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스타들의 내일이 없는 마라맛 토크와 다양한 재능들이 만개한 시선 강탈 무대로 꽉 채워지며 찰 웃음과 불거리를 함께 안겼다.

4인 4색 게스트들의 경계 없는 마라맛 토크 열전이 빈틈없는 큰 웃음을 선사했다.

스페셜 MC로 출격한 김영철은 특유의 오버 텐션 개그와 능청 만능 입담으로 풀뽀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증받은 정자로 아들을 출산한 사유리는 "아들 이름은 젠이다. 전부라는 뜻이다."

태어난 지 120일 됐고 하루에 응가를 4번 한다고 속사포로 아들을 소개했다.

또 "아줌마가 되니 무서울 게 없다."

나는 미래의 시어머니가 없어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며 특유의 8차원 매력과 더 강력해진 노 필터 입담을 자랑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비화를 공개했다.

출산 후 많은 축하를 받았다는 사

유리는 친구 오상진이 보낸 메시지를 언급했다.

사유리는 "오상진이 '너는 특별하고 멋있다.' 축하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눈물났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아들을 얻은 소식을 알린 후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았지만, 정작 출산을 준비하며 '방송 은퇴'까지 고려했다고. 사유리는 "엄청 욕을 먹을 줄 알았다."

대부분이 싫어할 거로 생각했다"고 설명해 시선을 모았다.

또 사유리는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받은 이유에 대해 "정자은행에 동양인 정자는 단 두 명밖에 없었다"며 "어릴 때 사진을 볼 수 있다."

EQ가 높고 술, 담배 안 하는 이력을 원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춘 이상민을 언급하며 "아들이 상민 오빠와 TV에서 뽀뽀하는 영상이 안

봤으면 좋겠다."

상민 오빠를 아빠로 오해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능청 토크로 웃음 사냥꾼의 매력을 뽐냈다.

'김삿갓'을 부른 국내 힙합 1호 홍서범은 '쇼미더머니' 출연 불발 이유가 공개했다.

그는 "초창기 시즈 때 '쇼미더머니'에서 심사위원 출연 제안이 왔었다."

'드디어 나를 불러주는구나'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참가자로 가능하나'라고 다시 연락이 왔다"고 비화를 공개해 시선을 강탈했다.

이어 홍서범의 과거 영상이 공개됐다.

마치 회식 자리에서 추는 듯한 춤이 인상적이었다.

홍서범은 이 춤에 대해 "마이클 잭슨과 동갑"이라며 잭슨의 춤을 보고 영감을 받아 동서양 합작 안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곡 '월드에 놀러 간 니체' 무대를 청하 7080콘서트를 소환한 엔드리스 히트곡 메들리 삼매경에 빠진 모습으로 폭소를 유발했다.

'노 필터 예능' 선구자 제시 역시 거침없는 입담으로 웃음 화력을 더했다.

가슴 성형 커밍아웃 1호 연예인인 안수석씨가 소환된 가운데 제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

속웃 광고를 찍은 사진을 SNS 올렸는데 댓글이 생각보다 가슴이 작다는 반응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크지 않다. 이게 뽀이다"며 가식無 급발진 토크로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이효리가 만나보라고 꼭 집어 추천한 남자가 있다며 그 주인공이 김종민이라고 밝힌 제시는 "종민 오빠는 사람이 착하다"며 툭한 칭찬을 덧붙였지만 김종국과 김종민의 이상형 대결에선 김종국을 선택, 김종민에게 의문의 1표를 안기기도.

이외에도 제시는 "환불원정대 곡이었다"고 소개한 신곡 '어떤 X'를 최초 공개,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제시만의 명불허전 무대를 선보였다.

'복지기 박지기'로 유명했던 가수 후니훈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휩쓴 영화 '기생충' 속 '다송이 자화상'을 그린 화가로 반전 근황을 공개했다.

후니훈은 '봉테일' 봉준호 감독과 작업하며 무려 36개의 그림을 그려야 했다. 그는 "느낌이 좋은 그림을 완성해 보냈더니 '이 그림 참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주를 나는 느낌이었다"며 봉 감독과의 작업기를 깨알 선대사와 함께 펼쳐 보이며 폭소를 유발했다.

또한 역대급 수상 이후 그림 가치에 대한 질문에 "100억을 제안한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해 MC들의 입을 딱 벌여지게 만들기도. 다음주에는 이계인, 김준호, 황해영, BJ랄랄이 출연하는 '쇼 어게인' 특집이 예고됐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뺨치는 초절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미치지 않고서야' 첫 대본 리딩부터 펼쳐진 신들린 연기 파티 미치지 않고서야 무조건 '꿀잼' 보장



'미치지 않고서야'가 첫 대본 리딩부터 신들린 연기 포텐을 터뜨렸다.

오는 6월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연출 김근홍 최정인, 극본 정도윤, 제작 아이윌미디어)는 격변하는 직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년 직장인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그린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법한 '퇴사'와 '이직'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해고'까지, 중년 '직망'들의 생존을 위한 오피스 활극이 유쾌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한다. '선덕여왕', '웰컴2라이프', '주몽' 등을 연출한 김근홍 감독과 '마녀의 법정', '동안미녀' 등을 통해 탄탄한 필력을 인정받은 정도윤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감을 더한다.

전날(17일)부터 이틀간 장원시내에서 진행된 대본 리딩에는 김근홍 감독과 정도윤 작가를 비롯해 정재영, 문소리, 이상엽, 김가은, 안채상, 박원상, 박성근, 김남희, 차정화, 조복래, 김중기, 김진호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열띤 연기 열전을 펼쳤다. '잡바'다룬 중년 직장인들의 아찔한 생존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뒤집기 한 판을 노리는 이들의 롤러코스터 같은 오피스 라이프를 리얼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연기 고수들의 호흡은 빈틈이 없었다. 주 무대가 되는 한명전자의 배경을 장원지역에서 울로케이션하는 만큼, 지역 연기자들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첫 대본 리딩부터 '연기의 신(神)' 정재영과 문소리의 시너지는 완벽했다. 정재영은 인사팀에 불시착한 위기의 개발자 '최반석'에 완벽히 녹아들어 극을 이끌었다. 최반석은 실력 있고 인정받는 베테랑 엔지니어이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갑질 돌풍에 어찌라지 보니 칼춤 추는 '인사의 세계'를 제대로 맛보게 되는 인물. 정재영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뽕기'와 '뽕심'으로 헤쳐나가는 최반석의 모습을 특유의 능청 연기로 그려내며 진가를 발휘했다.

'공감케'를 입고 연기 변신에 나선 문소리는 명불허전이었다. 엄격하고 강박의 워커홀릭 인사팀장 '당자영'의 걸크러시 매력을 극대화하며 좌중을 압도했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부터 조금은 엉뚱한 인간적인 면모까지, 노련한 연기로 당자영의 캐릭터를 완성해 웃음과 공감을 불어넣었다. 무엇보다 전략적 공생관계로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화끈한 생존기를 펼치는 최반석(정재영 분)과 당자영(문소리 분), 그리고 원수 같은 전 남편 한세권(이상엽 분)까지. 만났다 하면 '으르렁' 케미를 발산하는 정재영, 문소리, 이상엽의 환장 티키타카는 큰 웃음을 안겼다.

민고 보는 이상엽, 김가은의 활약

도 돋보였다. 이상엽은 당자영의 전 남편이자 총세력 강한 개발총괄실장 '한세권'으로 빙의, 캐릭터 맞춤형 차진 연기로 몰입도를 더했다. 한명전자의 사교유발자인 그는 주먹을 부르기도 하지만, 웬지 모를 허술함이 웃음을 유발하는 인물. 이상 엽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콤플렉스 덩어리인 '철부지' 한세권을 변화무쌍하게 그려냈다. 인기 원탑 상품기획팀 대리 '서나리' 역의 김가은도 다채로운 매력으로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도도한 서열 1위지만, 당자영 앞에만 서면 라이벌 의식이 발 동태 움찔하게 되는 서나리. 어디로 뺨치는 모르는 서나리 캐릭터를 맛깔나게 소화한 김가은의 활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리얼리티와 웃음을 배가시킨 연기 고수들의 시너지는 역시 첫 대본리딩부터 신들린 연기 파티에 정점을 찍었다. 평범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한명전자 패밀리 하드캐리는 또 다른 관전포인트. 안채상은 연구동 최고령 개발자 '노병국' 캐릭터로 현실 공감을 이끌었다. 박 원상, 박성근은 각각 구매팀장 '팽수근'과 QA(품질테스트) 팀장 '공정필'로 변신해 신스틸러 활약을 토크했다. 특히, 장인공고 삼총사로 불리며 한명전자의 전성기를 누렸던 최반석, 팽수근, 공정필의 관계는 극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대세 배우들의 존재감도 남달랐다. 김남희는 눈치 제로로 프로 일침러 '신한수'로 변신해 웃음을 더했고, 차정화는 재무팀 계약서 대리 '신정아'로 분해 당자영과 호감하고 화끈한 '찐찐' 케미를 선보였다. 어떤 캐릭터든 자신만의 색으로 녹여내는 '변신의 달인' 두 배우의 활약에 기대가 쏠린다. 한명전자의 젊은 폰대 CEO '한승기' 역의 조복래, 사내 정치의 달인 '고정식' 센터장 역의 김중기, 경영 지원본부 본부장 '배정탁'으로 분한 김진호까지 첫 대본 리딩부터 열연을 펼쳐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강원 돌풍에 맞선 이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한명전자 패밀리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이밖에 장원에서 열린 '미치지 않고서야' 대본 리딩 현장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도 방한해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제작진은 "캐릭터의 맛을 살리는 배우들이 모인 만큼, 유쾌한 대본 리딩 현장이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버틸 수 없는 오피스월드, 어른들의 뒤집기 환상을 위한 이유 있는 반란이 신박한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고 보는 이상엽, 김가은의 활약

한편, 경남·창원 지역에서 울로케이션으로 제작되는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는 오는 6월 첫 방송된다.

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갯벽' 한 토크러쉬 매력발산 시청자 '입덕유발'

배우 이레가 드라마 속에서 미래의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아무지게 해내며 갯벽한 '토크러쉬' 캐릭터로 활약했다.

이레는 지난 18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에서 솔직담담함으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진심이 가득한 17하리로 열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레는 최강희 몰래 음문석의 화보촬영장에 가려다 들켰고 가방 안에 소속 연예인 전속 계약서까지 발각됐다.

이레는 최강희 손에 이끌려 화보 촬영장으로 갔다.

최강희는 음문석을 향해 이레에게 연예인 바랍 나눠 말라며 격분하는 상황이었고 이레는 그 말에 "난 매일 혼자 집구석에서 그 쪽만 기다리면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내가 무슨 인형이야?"고 발끈했다.

그러다 여자모델이 조명선에 걸려 급 부상을 입고 촬영 취소 위기에 놓이자 사진작가는 대체자로 최강희에게 촬영을 제안했다.

결국 이레까지 참여하게 되며 화보는 가족 콘셉트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이레는 최강희를 설득하고자 하니끼리 같이 찍은 사진도 없다고 귀여운 속내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무사히 화보 촬영을 마친 뒤, 이레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꾸미고 다녀야 하나냐 최강희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날 보고 있잖아"며 가슴 따뜻한 말을 토크 내뱉기도. 특히 이레는 사내 공모전을 앞두고 있는 최강희를 위해 이곳에서 알게 된 인맥을 총동원해 과자를 먹게 하고 다양한 설문결과를 받게 했다.

극 말미 이레는 옥탑방에서 "저 오늘만 다른 소원 빌게요. 37살 반하니까 떨지 않고 발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고 과거 제사상을 펼치고 간절히 기도해 영통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이레는 10대의 기발한 감성을 실감나게 살려내며 시청자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대사로 '힐링요정'의 면모를 제대로 입증해내는 가 하면, 최강희와의 '여여케미'를 통통 튀게 살려내며 작품의 깨알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이레는 나이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을 바탕으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자연스럽게 시청자에게 스며들어 '입덕유발' 매력을 뽐내며 브라운관을 무대로 마음껏 활약을 펼치고 있다.

가수 정동원 생일 기념 기부금 전달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은 가수 정동원의 생일을 기념하여 정동원 팬모임 '스마일 밴드'가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동원 팬모임 스마일 밴드는 지난해 2월에도 가수 정동원 데뷔 및 미라클 앨범 출시 1주년을 기념하여 재단에 후원하기도 했다. 스마일 밴드는 "정동원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여 팬모임이 다 함께 나눔에 동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정동원 가수와 함께 '꽃길만 걷길 기원한다'고 후원금 전달 소감을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팬클럽의 선함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손자'로 불리는 정동원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며 팬모임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인 후원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제 102회 전국체전 D-200

시민과 함께 전국체전 성공개최 준비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국체전은 경북에서 5번째이자 15년 만의 개최되는 대회로 주 개최지 구미시를 포함해 도내 13개 시군에서 전국체전 47개 종목, 장애인체전 16개 종목이 치러지게 된다.

구미시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의 역할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다.

구미시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체육관련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 국도비 440억원을 지원받아 시민운동장과 박정희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복합스포츠센터를 새로이 건립했다.

시민운동장은 우선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구조를 보강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 캐노피와 좌석을 새로이 설치했으며 내부 구조를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시설상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어 구미 체육시설의 간판이자 전국체전 개최의식 장소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박정희체육관은 내부 석면 구조물을 철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가변식 관람석 교체 등을 통해 좀 더 관람객 친화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무엇보다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구미시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남게 되는 건 당연히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라고 할 수 있다.

복합스포츠센터는 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40레인의 불링장과 모든 실내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1천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국체전 기간 중 불링경기장과 시·도본부로 활용된다.

대회 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링장으로 운영하고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산체육관, 금오테니스장 등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금오공대, 경운대, 금오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학교 체육시설에 개보수 사업을 실시해, 부족한 경기장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전국체육대회 16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전 9개 종목을 구미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적인 준비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2. 22일 복합스포츠센터 준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체육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시민운동장의 경우 진흙임포가 양복4차로의 박정희로복에 없어, 대회 기간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탑에서 시민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통해, 체전 기간 방문객들이 시민운동장을 찾아오기가 훨씬 쉬워지고 현재 새 마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해 송정, 광명, 형곡지역에서 공단방면으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착공해 1년 8개월이 걸린 체전시설사업은 공사로 인한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민들의 관심과 양보로 사고없이 안전하게 시설 완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

전국체전이 2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구미시는 다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기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회 분위기를 살리고 안전하고 감동적인 손님맞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먼저, 구미시가 2021년 전국체전 개최지임을 내외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다시 점화한다.

외부로는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서의 구미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내부적으로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라는 목표를 위해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회 기간 방문하는 수만명의 손님을 안전하고 감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절마인드를 높여 나갈 것이다.

노후화된 도로와 교통시설물을 보수하고 공한지 등의 환경취약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꽃길 조성, 거리정결 캠페인 등을 통해, 전국체전 준비 과정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미'로 발돋움하는 계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로 삼고최일선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는 숙박·요식업·대중 교통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통해, 체전 기간 한 번 찾고 마는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다시 찾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는 불가능하기에 전국체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체전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참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민서포터즈는 전국체전을 앞장서 지원할 시민 리더로서 자발적인 홍보활동과 응원 참여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주변 곳곳을 관심있게 살피며 '다시 시작 행복구미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국체전을 지원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전국체전을 앞장서 지원할 시민 리더로서 자발적인 홍보활동과 응원 참여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주변 곳곳을 관심있게 살피며 '다시 시작 행복구미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국체전을 지원하게 된다.

시민서포터즈는 2021년을 뜻하는 2,021명으로 구성되며 6월 중 읍면동별로 배정된 인원 내에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는 대회 기간 중 대회운영을 보조하고 각 경기장에 배치되어 경기운영 지원, 장애인 및 노약자 지원, 관람객 안내,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6월 중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경상북도 전체 3,0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체전 준비를 위한 수많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대회운영 위원회를 조직하고 1실 18부 85팀의 실무부를 구성해 대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각 기관과 부서별로 배정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전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많은 체육 꿈나무의 미래가 이 대회에 달려 있고 수 만명의 국민이 각 시·도의 일원으로 한 곳에 모여 선의의 경쟁과 열린 응원으로 지역의 자긍심과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 내며 100년의 세월동안 민족의 슬픔과 기쁨을 모두 함께 겪으면서 이어져 왔다.

전국체전이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됨으로 대한체육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했던 경상북도도 구미시의 바람은 일년을 더 기다리게 됐지만, 모든 구미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올해 10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선포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전국체전 100년 역사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대회 순연의 아픔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희망 메시지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19를 조기까지 종식시키고 전국체전을 잘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부상 투혼 발휘 LG 이관희 역대 93호 3,000득점+개인 최다 Ast 동시 작성

장원 LG 이관희(33, 189cm)가 손목 부상 여파를 딛고 통산 3,000득점과 개인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동시에 작성했다.

이관희가 속한 LG는 18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72-105로 완패했다. 초반부터 일방적인 리드 속에 끌려간 LG는 경기 내내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며 31패(16패)째를 떠안았다. 순위 역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으나, LG의 새로운 구심점이 된 이관희는 이날 두 가지 기록을 한꺼번에 작성했다. 역대 93번째로 통산 3,000득점 고지를 넘어섰고, 14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개인 최다 어시스트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3,000득점에 단 10점이 모자랐던 이관희는 3

쿼터 중반 자유투를 얻어내며 기록 달성 문턱에 다다랐다. 프리드로우 라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3,000번째 득점을 자유투로 완성했다. 이어 2구 역시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기록 달성을 자축했다. 이날 이관 희는 총 36분 29초를 뛰며 팀에서 가장 많은 15점을 올렸다.

손목 부상 여파로 슛 컨디션은 정상 아니었던 이관희. 대신 포인트 가드로 나서 14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지난 14일 KT전에서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많은 11어시스트를 올렸던 그는 나흘 만에 개인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새로 갈아치웠다. 이로써 이관희는 두 경기 연 속 어시스트 동반 더블더블도 작성했다.

부상 투혼에도 팀 패배로 웃지 못한 이관희가 다음 경기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LG는 20일 고양 오리온을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전순희기자



2021년 중고핸드볼선수대회 고성서 첫 개막

2021 협회장배 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 개최

고성군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2021 협회장배 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를 고성군국민체육센터와 고성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부산일보사가 주최하고 대한중고핸드볼위원회와 고성군체육회가 주관하며 고성군이 후원한다.

2021 시즌 첫 중고핸드볼대회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44개 전국 중·고 핸드볼선수단이 참가하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고등부, 실내체육관에서는 중등부 경기가 펼쳐진다.

고성군과 대한핸드볼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리를 최우선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가팀은 대회 개막 2주 전부터 매

일 동선 확인과 체온체크한 점검표를 대회당일 제출해야 하며 대회 개막 후에도 동일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경기장 출입 관리를 위해 선수를 비롯한 필수 인원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해 경기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자외선 소독부스를 경기장마다 설치해 출입자는 10초간 전신을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스포츠산업육성과 학생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철저한 코로나19 관리를 통해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며 "특히 언제나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핸드볼 경기를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대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KGC인삼공사 문성곤, 조성민에게 들었던 조언은?

"슛도 좋고, 수비 활동량까지 너무 좋는데 미드레인지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 해주셨다."

안양 KGC인삼공사는 18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 맞대결에서 105-72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다. 25승(22패)째를 거둔 KGC인삼공사는 단독 4위 자리를 지켰다. 3위 고양 오리온과 격차는 2경기다.

제러드 설린저는 3점슛 4개를 모두 성공하는 등 27점 11리바운드로 활약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문성곤(15점 3점슛 5개 2리바운드 2어시스트)과 전성현(16점 3점슛 3개 5리바운드), 이재도(13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변준형(12점 3리바운드 6어시스트 2스틸)도 두 자리 득점을 올렸다.

특히, 문성곤은 이날 1쿼터에만 3점슛 4개를 성공했다. 문성곤이 한 쿼터에 3점슛 4개를 성공한 건 처음이다.

문성곤의 3점슛이 터지기 기다린 KGC인삼공사 김승기 감독은 이날 경기 전에 "문성곤이 최근 두 경기에서 3점슛 1개(13개 시도)를 성공했다. 그 쪽(문성곤)에서 득점이 나와야 한다. 앞선 경기에서 3점슛 1-2개가 들어갔다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며 "안쪽(골밑)에서는 맞 추간다. 이재도, 전성현 쪽에서 긍정적으로 득점이 나온다. 성곤이의 슛 기복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 생각을 조금 해야 할 거 같다"고 문성곤의 3점슛 부진을 아쉬워했다.

문성곤은 이날 3점슛 5개를 터트리며 김승기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김승기 감독은 LG에게 승리한 뒤 "(문성곤이) 욕심을 낸다. 꼭 3점슛을 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3점슛) 넣으려고 한다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폼대로 쏘면 들어가는데 점프를 많이 뜨고, 무빙을 많이 하면서 슛을 던진다"며 "이재도, 전성현과 함께 뛰면 상대가 두 선수에게 슛을 안 주려고 해서 성곤이에게 슛 기회가 많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럼 발판 맞추고 있으면 던질 수 있는 슛 기회가 난다"고 했다.

이어 "다른 팀에서 설린저에게 더블팀을 들어갈 거다. 그럼 가장 많은 기회를 받을 선수가 성곤이다. 성곤이가 그걸 알고 오늘(18일)도 그렇게 경기를 했다"며 "넣는다는 것보다 편안하게, 무빙을 많이 하지 않고, 점프로 많이 하지 않으면서 쏘라고 했다. 그렇게 잘 했다. 그렇지만, 무빙도 많이 하고, 점프로 많이 하면 확률이 떨어진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날 3점슛을 많이 받은 문성곤에게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 것이다. 문성곤이 앞으로 꾸준히 3점슛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김승기 감독은 이 부분을 언급하자 "그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지금은 볼 면목이 있지만, 그 전에는 재미있는 농구를 하기 위해 고집을 부렸다. 외곽슛을 많이 쏘고, 오세근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외곽

(에서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선수를 뽑았다. 지난 시즌에는 맞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했다. 실패를 해서 외곽 기회가 많이 안 났다"며 "오늘 경기에서 슛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린저의 가세로 문성곤이 더 많은 슛 기회에서 더 많은 3점슛을 넣을 환경이 만들 어졌다고 했다.

문성곤도 "아직 몸이 안 올라와서 저 정도 하는 거 같다. 몸이 더 올라오면 더 완벽한 선수가 될 거다. 연습할 때 보면 슛이 워낙 좋다"며 설린저의 기량을 높이 산 뒤 "상대팀은 설린저를 막아야 하고, 그 다음은 이재도 형을 막아야 한다. 미스 매치가 난 상황에서 저에게 기회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고,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더 좋아 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다"고 했다.

문성곤은 이날 경기 전에 조성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보통 경기 전에 친분이 있는 선수들은 이야기 꽃을 피운다. 문성곤이 조성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보통 선수들 사이의 편안한 분위기와 조금은 달라 보였다.

문성곤은 조성민과 경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자 "제가 조금 더 높이 위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다"며 "너무 좋다. 슛도 좋고, 수비 활동량까지 너무 좋는데 미드레인지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 해주셨다"고 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부진했던 슛 관련 조언을 듣지 않았는지 되묻자 "슛은 밸런스를 잡고 경기를 하면서 쏘라면서 슛은 제 리듬이니까 크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했다.

문성곤은 오히려 "주저하지 않고 쏘서 좋은 방향으로 갔다.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훈련할 때 슛 마무리 동작에서 큰 병에 들어가 있는 과자를 집는 손 동작을 하라며 슛 던지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래서 슛이 잘 들어갔다"고 웃으며 설린저의 조언을 들려줬다.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은 문성곤이 공격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며 한 발씩 성장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